朝鮮日報 夕刊
本紙朝夕刊十面

巨彈을返投코저 『히』總統敢然奮起
四面楚歌를問題視안코 强硬聲明發布決定

히틀러總統

【電通伯林十八日發】佛國의獨逸包圍工作의進捗을 南獨의山莊에서熟視하면서 對答을考究하고잇는 히틀러獨總統은十八日外交問題에關한 總統의懷刀리펜드롭스氏及 노이라트外相以下外務首腦部를 山莊에招致하고協議를遂한結果

一、聯盟理事會의對獨決議案은 紛爭當事者一方의主張을 表明한것에不過하다 따라서 이에依하야生할 모든對獨工作은 아모客觀性을가진것이아니다

一、理事會諸國이 輕率하게 如斯한行動에出한것은 單히獨逸의 壽府復歸에 스스로重大한 障害를만든것뿐 아니라 獨逸이 他國際協力에 參加하는길에 甚한阻害를 與하는者이다

라는主旨下에 强硬한聲明을 發表하기로決定하엿다 右聲明은 히틀러總統自身의 宣言으로할는지 或은普通의 政府聲明書의形式을取할는지 未定이나佛國의問責巨彈에對한 斷乎한返投巨彈인것은 疑心할餘地가업슴으로 佛、獨의 對立結果는 右發表에依하야 드듸어決定的의것이될모양이다 그런데右發表가總統宣言의形式을取할境遇에는 十九日에公布될것이라고하는데 單히對外宣言일뿐만아니라 獨逸全國民의 名譽와 重大時局에對한 痛烈한 注意喚起의意味를 包含한것이라고觀測된다

第二次爆彈宣言 全世界에闡明?
나치스巨頭鳩首密議한結果 發表期는來二十日

【伯林세스가르텐(바이에룬)十八日發聯合】理事會의問責決議案으로 沸騰한與論을 아떼두고히틀러總統은 依然히세스가르텐의山莊에들어안저 容易히수레를움죽이지아니하고잇는데 十八日에는 벌서부터 外相노이라트男爵 防相부롬벨그 軍縮使節리펜드롭스氏其他 家子郎黨을 山莊에招致하고 重要協議를 遂하엿는데 外務次官뷰로로 公을 通하야英國政府에 嚴重抗議를 提出한것은 右山莊會議의 結果라고보이는바 또히틀러 總統은 二十日 土曜를期하야 第二次爆彈抗議를 發表하야나치스獨逸의國策을 全世界에闡明하리라는觀測이 드듸어 有力하게되엿다

塗抹!

話題解說
聯盟制裁規定

◇十七日 壽府電報는 聯盟理事會가 英佛伊三國이 提案한 獨逸問責決議案을 丁抹의棄權과 十三國代表의 滿場一致贊成으로 可決하엿다고 報道하여왓다。그決議案의 內容은 三項으로되얏스나 要約하면 平和를破하고 聯盟의權威를維持하기爲하야 委員會를設하고 對策을講究할려인데 特히經濟的制裁的方法에對하야 規定하는것을 委任하리라고한다。

◇即聯盟規約十六條 制裁規定의發動을圖하라는것으로서 今後設置될委員會가 어더한斷案을나릴는지는모르지만 爲先여기에는 制裁規定만 紹介하여두라한다。

第十六條(制裁)

一、第十二條(國交斷絕에對한條)第十三條(仲裁裁判)又는第十五條(理事會의報告)에依한約束을無視하고戰爭에訴한聯盟國은當然他의모든聯盟國에對하야戰爭行爲를한것으로看做한 他의모든聯盟國은 此에對하야곳 一切의通商上又는金融上의關係를斷絕하고 自國民과違約國國民과의 一切의交通을禁止하고 凡聯盟國이고 아님을不問하고 他의모든나라의國民과 違約國國民과의間에 一切의金融上通商上又는個人的交通을防遏할것을約함

本條文에依하야 聯盟은違約國을 經濟的으로制裁를할것을彼此約束한것이니 所謂經濟封鎖라는말도 여기서由來한것이다

◇本條는 一九二一年과一九二四年에 그後半을改正하고 또當初에는 一項이든것을 一九二一年에二項을追加하야 全文四項으로되얏다。여기에는 紙面關係로 全文을紹介하지못함을遺憾으로여기거니와 大體의眼目은 違約國에對하야 交通、通商、金融및 個人의交通交易까지도 防止又는禁止하자는데不過한것이다 그러나 이번에果然어더한形態로 이條文의發動을보게 될는지는 歐洲政局의現勢에 비치어 가장注目을끄으는바이다

殉職警官招魂祭

來二十一日午前十時부터 景福宮勤政殿에서 朝鮮警察協會와朝鮮消防協會主催로 第十五回殉職警察官及消防職員招魂祭와 第一回殉職消防職員招魂祭를 擧行한다하며同二十日 午前九時부터 光化門通警察官講習所에서 第七回武道祭를執行한다고

道知事會議三日

道知事會議第三日은 十九日午前九時부터開會、日程에依하야 宇垣總督은二時間에亘하야 訓示를하고 五分間休憩、再開後다시今井田政務總監은 總督訓示를敷衍하야 訓示를하엿다 午後에는一時부터續開、第二日에引續하야 今回會議의가장重要問題인諮問第四項 地方稅制整理에關한意見에對하야 再次富永京畿知事로부터 答申을開始하엿다

八面鋒

◇伯林會議에서 잡떡가든約束을 하여놋코 壽府理事會에서 問責決議는 무슨不信行爲냐고。

◇獨逸로보면 唯一한同情國(?)인英國에對하야 憤怒의一矢

◇人民投票로써 聯盟決議反對意思를表示하라는 獨逸이니 四面皆敵은 覺悟已久。

◇佛蘇協約의 뒤를니어 「체코」와蘇聯이 또相互援助條約締結을發表。

◇親하면與함이잇고 近하면遠함이잇스니、世界不安도 여기에서 人類不幸도 여기에서。

獨政府英大使에 不信을强硬抗議

【伯林十八日發聯合】獨逸政府는 스트레자會議와 聯盟理事會에서取한 英國政府의 態度는過般의伯林에서한 히틀러總統과 사이먼外相의 會議에對한不信行爲라고 十八日伯林駐箚英國大使펠립스氏에對하야爲先口頭로써强硬한抗議를提出하엿다고

獨抗議英國發表

【倫敦十八日發聯合】聯盟理事會의決議에憤激한히틀러總統은十八日外務次官뷰로一公을通하야 直時英國政府에抗議를提出하엿다 右抗議內容은强硬辛辣을極한것인 모양으로이에 對하야英國外務當局은十八日夜抗議內容에對하야非公式으로 如左히言明하엿다 伯林駐箚大使필립스氏는十八日夜外務次官뷰로公에게招致되어外務省에赴하엿던바뷰로次官은聯盟理事會가今回獨逸政府問責의決議案을採擇한데對하야 憤慨의情을示하고더욱이英國政府가右決議案을支持한것은히틀러總統의感情을不少하게害하엿다는뜻을報告하엿다 英國政府當局은히틀러總統이山莊에外相以下同國首腦를招集하야重要協議를遂하고잇다는報道에對하야 多大한關心을示하고 首腦部會議의結果 如何를 待望하고잇다

방쿠버材木荷役 埠頭人夫罷業

【電通방쿠버十七日發】방쿠버材木荷物의準備仲介人은賃銀引上을要求하고이미罷業을 開始하엿는바勞働不安은 英領콜럼비아全體에波及하려는狀態에잇서 事態는 자못念慮된다

獨逸政府十八日 新國防令發表
徵兵은精兵主義採用

【電通伯林十八日發】獨逸政府는 佛國의 包圍方策에對抗하야急速한國防充實을 計劃하려고爲先再軍備宣言의 具體化를爲始하야新國防令을發表하엿는데 이에包含되는 徵兵規定이야말로精兵主義를모든意味에서 採用하려는新編成方針이 一目瞭然하다 即右規定中 身心共히健全하야 獨逸國民의代表的壯丁인者만을 徵兵하기로되엿고

一、體格이先天的으로强健한者

一、充分한敎育을遂한者

一、健康能力或은氣力에잇서 將來缺陷을生할憂慮가업다고認定되는者

를標準으로하고 精神的으로도嚴格한檢査를行하야 質的으로도無敵陸軍되게하려고期하고잇는것은往年의카이제르時代의帝政主義에彷彿한바가잇다

勃牙利內閣總辭職

【電通소피아十八日發】츠라데프將軍을首班으로하는 勃牙利政府는十八日總辭職하엿다 原因은前首相外五名의 政治家가反政府陰謀를企圖하고 昨年七月現內閣成立當時發表되엿든政黨解散令에違反되는行動을取한結果 츠라데프首相이獨斷으로逮捕한데對하야內閣에反對를提唱하는者가 나왓스므로首相은閣內不統一의責을負하고 보리스三世陛下께 拜謁하고 全閣員의辭表를 提出하게된것이다 皇帝는總辭職을勅許하엿스나 國內의政情이複雜하기때문에 後繼內閣의決定은 遲延될模樣이다 그리고歐洲政局의動搖와아울러 勃牙利國內의政情은 一層複雜化할 것으로보인다

蘇체間、互相援助條約成立

【電通壽府十八日發】체코슬로바키아와 蘇聯과의相互援助條約은今日의리트비노프、베네슈會見에서成立하야 베네슈外相이月末莫斯科에赴하야 新條約에調印하기로되엿다

【電通壽府十八日發】十七日夜佛外相과의 交涉에서 佛、蘇新相互援助條約締結에成功한리트비노프蘇聯人民委員長은 또今日은체코代表 베네슈氏와會見하고佛蘇同盟과 併行하야 이를支援强化할체코蘇聯相互援助條約締結의 交涉을進行하엿다 新체코蘇聯條約은 佛蘇條約同樣으로聯盟規約第十五條、第十六條及第十七條에基하야 國交斷絕의境遇 戰爭에訴할境遇及其他의紛爭等이 條約締結國의一方과 獨逸又는其他의諸國과의사이에 發生한境遇에는 蘇聯及체코슬로바키아兩國間에 相互援助를할 義務가잇는것을 規定하려는것이라고 解釋된다

베르사이유條約 嚴守하라고警告
駐獨英伊兩國大使 三國會議覺書手交

【伯林十八日發聯合】伯林、英國大使필립스氏는 伊太利大使쎄루치氏와함께 十七日獨逸外務省을訪問、外務次官뷰로公과 會見하고 스트레자會議의聲明書를手交하엿다 兩大使는 英、伊兩國政府에서 로카르노條約에基하야 「라인」國境의現狀維持와 武裝解除의保障의責任이잇다는것을 再確言하고 獨逸政府가 베르사이유條約第四十二條 第四十三條를嚴守하라고警告하엿다 右警告에對하야 뷰로次官은 로카르노條約諸關係國政府는 佛國政府에對한 侵略의境遇同樣으로獨逸에對한 侵略의境遇에도 다가티 國境保障의責에任하겟는가고反問하매 兩大使는「어」境遇에도그러타고 確言하엿다 如何튼 兩大使今回의警告는 英伊兩國政府가 곳까지「라인란트」의現狀을維持할意向을宣明하고 獨逸政府에重大警告를發한것이다

中米도미니카國 滿國에好意表示

【電通新京十八日發】中米도미니카共和國의 滿洲國에對한好意的態度는 最近더욱濃厚하여지는傾向이 이잇다 即同國의滿洲國正式承認은 時日問題라고 보이게되엇다 昨年八月十六日도미니카共和國大統領에 滿洲國皇帝陛下의 御卽位를 通告하엿든바 同大統領은 大統領에 모리나元帥가再選되엇다는旨의 公文書를滿洲國에 發한것을爲始하야 十二月六日에는 外務大臣副署의 大統領親書를滿洲國皇帝陛下에게 捧呈하엿는데 이에對하야 今年一月二十九日 滿洲國皇帝陛下로부터서도 모리나大統領에對하야 好意를 謝한다는旨의 親書를發하엿든바 도미니카國外務大臣은 滿洲國外務大臣에게로 皇帝陛下의 親書에對한深甚한謝意와 滿洲國의發展을 熱望한다는旨의公文書가到達하엿다 이와가티兩國關係는 漸次親善을加하야 正式承認도 가까운將來라고보인다

滿國石油專賣로 日本政府에再抗議
十八日米國務省發表

【電通華盛頓十八日發】十八日米國國務省發表=米國政府는 滿洲國의石油專賣問題에關하야 再次日本政府에抗議를提出하엿다 그리고 右에關하야 헐國務次官은 如左히말하엿다 그루一大使는 本國政府의訓令에依하야 日本政府에對하야再次米國의立場을說明하고 滿洲國에對한 米國人의權利를保留한다는旨를 言明하엿다

米政府抗議要旨

【華盛頓十八日發聯合】米國政府의抗議要旨는如左하다

一、今日滿洲國政府가石油專賣를實施하게되엇슴은日米兩國政府가相互締結한諸條約과 違反되다

一、日本政府、滿洲國政府는再三聲明을發하야 極東의通商上의機會均等을强調하고 門戶開放의原則을尊重하겟다는旨를中外에誓約하고잇스나 今回의滿洲國石油專賣는 明白히右誓約에어그러진다

一、米國政府는앞서 日本政府에對하야 抗議한바잇섯고 日本政府의回答도잇섯스나 米國政府는右日本政府의 立場을容認할수업다 玆에거듭抗議를發하야 다시日本政府의 說明을要請한다

(寫眞은헐長官)

內閣審議會 官制案內容全文
今日閣議에서決定

【電通東京電話】十九日의閣議에서 決定한內閣審議會官制案內容은 如左하다

第一條 內閣審議會는 內閣에隸屬하고 그諮問에應하야 重要政策에對하야調査審議함 또重要政策에對하야 審議함을得함

第二條 內閣審議會는會長一人、副會長一人、委員十五人以內로써組織함

第三條 會長은內閣總理大臣으로써此에充함 副會長은 國務大臣中에서 勅命함 委員은 練達堪能한 者中에서 閣拔하야此를勅命함

第四條 會長은會務를總理함 副會長은 會長을補佐하고會長이事故가有할時에는 그職務를代理함 會長副會長共히事故가有할時에는 內閣總理大臣의指名한委員이 會長의職務를代理함

第五條 國務大臣은 會議에出席하야 意見을開陳함을得함

第六條 審議會의議事에關한規則은內閣總理大臣이 此를定함

第七條 內閣審議會에幹事를置하고內閣書記官長、法制局長官及內閣調査局長官으로써充함 幹事는會長及 副會長의指揮監督을承하야庶務를整理함

第八條 內閣審議會의庶務는內閣調査局에서掌함

重大報告完了코 有吉公使勇退
後任은有田駐白大使

【東京電話聯合】上海事變後多難한日中外交의衝에當하고 今日의提携實現까지 努力한有吉公使는 二十三日頃歸東、廣田外相에對하야 在任中의懸案折衝經過를 逐一報告하고 日中提携의 根本策에對해서도重大進言을한後 勇退하기로되엿다그런데그後任에는 日中外交의重大性에 鑑하야 廣田外相이嚴重銓考中인데 現白耳義駐箚大使有田八郎氏를 起用하기로 決定하고 近近 南京政府의『아그레망』을求하야 如左히正式으로發令하게될터이다

特命全權大使 有田八郎

任特命全權公使(一等)(親任官待遇)

中華民國駐箚被仰付

人事·集會

▲李仁氏(科學智識普及會副會長)科學데이人事次來社

▲金容瓚氏(科學智識普及會理事)同上

▲金暻明氏(科學智識普及會理事)同上

▲金正洙氏(科學朝鮮社)同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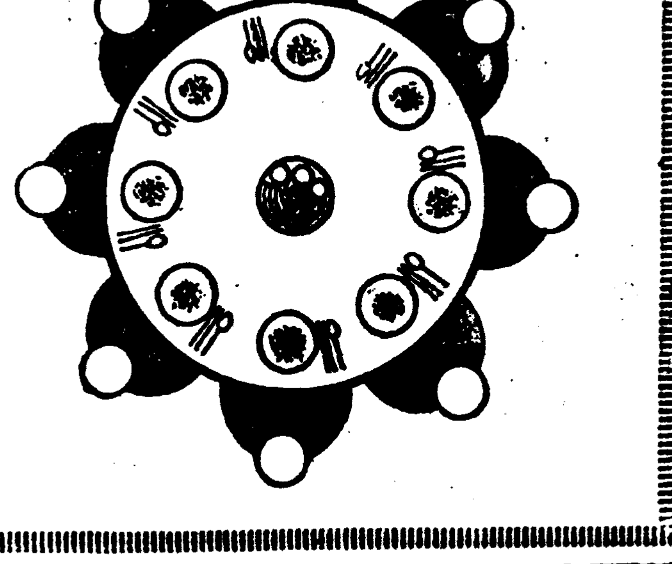
▲朴吉龍氏(科學智識普及會)同上

▲洪新燮氏(科學智識普及會委員)同上

味の素(아지노모도)

맛잇는음식

음식은 변々치 못함니다만 아지노모도를 첫숨으로 맛만은 틀림업시 조흘쭐 암니다



(登錄商標)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鈴木商店 4-V

빅타-레코-드 五月新譜 四月二十日發賣

獨唱	봄부르는處女 / 千里의나그네	安輔承
流行歌	斷腸 야윈그림자 怨	金福姬
流行歌	구슬픈회파람	金石燕
流行歌	恨만흔밤	崔南鏞
流行歌	외로흔자최 / 길일흔산새	李銀波
新民謠	날오라 / 여금난봉가네	金玉眞
興甫傳	흥보쫏겨가는데	李中仙 李花
俗謠	경발님	張鶴仙
讀書	忠孝錄	高蓮玉

쭈녀레코-드 一枚一圓

癩病에呻吟하시는男女老少는!! 大發明의癩病靈藥을試用治病하라!

萬病의惡疾인風!第一의難治의癩病世界에만흔是皆學者들은이惡疾의風難治의癩病에對하야얼마나만은頭惱를썩히며千萬辛苦의藥을硏究하야왓는가? 그러나完治의曙光을엇지못한患者들은絕望과悲歎!오-直自棄와呪咀를마지안엇다 이에苦悶하는兄弟들이여!落望은禁物이다 復活의길로나오라!!傳來의秘方을硏究發明하야三十六種의風、癩人之境의癩病等을百發百中完治의曙光을주는

癩病換骨丸 이잇슴니다

癩病換骨丸은當局에서分析한結果神効를證明하고旣히特許한製藥임은再言치안슴니다

【支店又는特約店希望時는本舖照會次第規定書進呈】

▲癩專門 主治効能 換骨丸

効能 栗白黑癩、麻目、鶴膝風、啞斜風、疼風、白雪風、産後風、皮風、大瘡風、癩疾其他三十六種癩病等

◎藥價◎

一週日分 六百三十介 壹圓七拾錢

二週日分 一千二百六十介 參圓貳拾錢

三週日分 一千八百九十介 四圓六拾錢

一個月分 二千七百介 六圓參拾錢

二個月分 五千四百介 拾貳圓

◎但先金註文에는本舖에서送料를負擔함

癩病換骨丸製造本舖 密陽郡下南面守山里 製藥主 曺道光

◆四月十八日낫부터 特別興行 每日三回正午十二時三時半七時半 料金 階上 大人五十錢 小人三十錢 階下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米國아리드映畫會社特作全發聲 活劇 鐵火의巨人 몬루-헐유 노아-베아리 主演

終始一貫피가끌코 살이뛰는活劇의特大篇海洋을背景으로한「로만스」와陰謀와鬪爭과戰慄!!男性美發揮의傑作!!

◆松竹키네마社特作品 原作 尾崎紅葉先生 監督 野村芳亭 金色夜叉(一名長恨夢) 林長二郎 田中絹代 主演

仁寺洞 電光三六 朝鮮劇場

自轉車材料原價奉仕 問屋

製造元より直接皆樣へ信用提供 特典付商品 進呈

實用優良新型 最高級品 出物太吟味堅牢自轉車 仕上 中古車

地方諸官廳納品 帝都實隨一のエスエム號 名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 東京元祖自轉車商 電話日本橋三七〇二番

精神病科 腦脊髓神經病専門 入院室完備

京城府外淸凉里 (大學附屬醫院) 院長 原振緖 原病院 電光 2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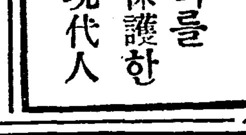
商部の代表品

エキストラ高級萬年筆은發賣二十有余年의歷史를가지고가장信賴되는優秀品으로서大好評을博得하야잇슴니다 品種은五十有餘種이다 希望대로物品을選擇할수잇슴니다 特히只今은一割引及景品附大特賣中詳細는下記에가다로구를申込한後一覽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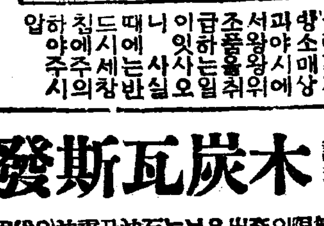
万年筆なら是非エキストラを

東京市芝區田村町二丁目榮和ビル 明盛堂製作所

はれやか 로 머리를 保護한 現代人



제일독 원조 조선세창갓표 반흔 물끼잇는손으로(강물)문대도 조금도변치안는것이 특색입니다



純正商標見本

근래각지소매상과야시에서왕왕위조품을취급하는이가잇사오니사실을주의하시는때에는반듯이창세씨의니다 조시주주야하압

直輸入販賣商 仁川府支那町 同福公 京城總賣店 京城南大門通四丁目一四 李泰漢商店 電話本局二五一三番

特許 特三 木炭瓦斯發生機

無限의原料와重油及石油를보는서로運用代用의發動機에는運搬費가석탄料에自給自足이라是로一般의使用에는一石油、重油의五分之一로節約 (明細는型錄送呈)

ライト發動機鮮滿總發賣元

自二馬力 至十八馬力 (カタログ送呈) 請求에는二錢切手要함 特約店募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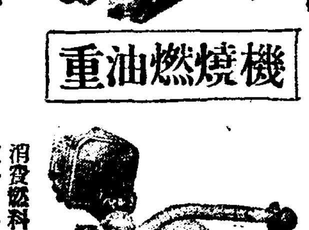
中島式製粉機朝鮮發賣店

京城府元町一丁目百七十番地 朝鮮販賣元 長谷部工場營業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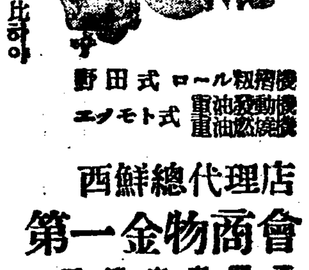
特許 專賣 式トモノエ 重油發動機

世界唯一의 マグネット着火 理想重油發動機

一馬力半으로부터 十五馬力在庫豐富



重油燃燒機



重油燃燒機는어떤發動機를勿論하고利用할수가잇슴니다 消費燃料는他機에比하야三分의一

野田式ロール粉麿機 エノモト式重油發動機 重油燃燒機

西鮮總代理店 第一金物商會 平壤府南門通 電話一七一七 2068番 振替京城 16175番 (各地에特約店大募集)

新學期의話題 必要는全無하니 斷然廢止가可當 【七】
學校對指定商人是非問題

결국은 지정상인을 둘필요가 잇는냐 업는냐 하는것이 문제의 초점이 될것이다 일반 학부형측으로서는 필요업다는것을 주장하리라는것은 지금까지가 노하 설명할필요는업슬줄안다 이상에말한 그폐단의일부분만으로서도 부당상 학부형들에 얼마나불리한것인가를 넉넉히알수잇슬뿐안이라나아가서는 교육자의 신성한인격까지 더럽히고잇지안는냐하는의혹까지밧게되니、현재와가튼제도하에서학생들에게편리를주지못할진댄당장에라도지정상인제도를 폐지하는것이 올흘것이다

◇

그러나 학교당국에서도 지정상인을두게 할때에는 어느정도까지라도 필요가잇지안엇스리라는 것을 생각지못할수업다 그러면지정상인은 어느때부터왜필요햇든가?지정상인이 생긴 시초는지금으로부터 십수년전 향학열이팽창하야각지의 학교란 학교는만원에또만원이되고강습소가우후의죽순가치생기며오든것과제와교풍과제도가변하야학교라면어느곳이나교복을새로만들어입게되든그때에물품을사려는사람은만헛스나물품을팔려는 상인의수는 적어서교과서의배급이 느저진다던가 교복교모의조달이 느저진대가 업지안어큰학교일수록 큰양복점이나 서점、모자점등과 약속을 매저가지고일정한 기한내에 모든학용품을 조달식히기위하야서 비롯햇든것이다 사실그때는 학교로서도 학생들로서도 지정상인이어느정도까지필요하기도햇다 특히개중에는특설한교복교모를 제정한곳에는 더구나지정상인이필요햇슬것이다 그때문에 학교로서도편의를 보는한편 상인들도지금이상으로 엉뚱하게 큰리익도보앗슬것이다、

◇

그러나 오늘은 시대가변하엿다 모자점이니 양복점이니 책사가골목마다 두손을 느려치고손님을고대하고잇는곳이 벌어도、만치안은가 어느양복점이나 어느모자점에 가던지 어떤학교의것이라도 조금도틀리지안케 만들어내인다 오늘에는 옛날과가튼 불편은 업다、가격도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옛날의[illegible]를 까와 비교한대도 그비례 이하로 싸고제품도 조와젓다 그런데볼묘하고 가튼돈을주되 더만히주고 상인에게 매우게되도록 지정상인의 불편을바들것이야 무엇이라필요잇는것이면 학생에게 사게하되일정한 규격과제도를 지시하여주엇스면 그만일것이아닌가 그래도 념려스럽다면 일정한표본품을뵈이기위한 정도에 끄치면그만일것이다 그런것을 짐지어필요업다는개인 사정가튼것은 생각지도안코억지로 사게한다던가 싸갑스로살수잇는것도 빗싼갑스로 사게한다던가 하는것은절대로필요업는부당한일이다

◇

그래고이와가튼 무리한제도를 학생에게하야 반강제적으로 시행하는학교태도를 좀더 검토할필요가잇다 학교당국으로서는 교육의일정한목표와 방침을가지고 지도하는입장에서 엄정한규률밋헤 시행하는것이어서 일일히 학부형의주문을모다늬어줄수업는형편에잇는 사실이다 그러나 만분사정의자제를 마러가르키는이상 부형의의사를 존중치안흘수 업는것이고 더구나금전상 부담에관하는일에 잇어서는 일층부형의편을존중하여야 할것이다 오늘의조선사회형편을보면 민중 전반의경제적으로 곤핍한생활에 잇거던될수잇는대로 부담을 적게하도록부형의사정을 살펴야할것이다 그런데 지정상인제도의 일례를보더래도 학교당국자들의태도가 부형들에게 그리친절치못한 태도도넉넉히 짐작할수가잇다 모름이 세상형편을 살피어 무리한지정상인의제도를 폐지또는 개정할것이다 (끗)

南에서西北地方으로 激增하는春窮民
昨年中水災冷害影響으로 窮乏은漸次慢性化

조선내의 세궁민조사는 총독부에서는 방금 총독부에서는 집계중으로 그수자는 례년에 보지못하든 막대한 수에달하야 결국 수자의발표는 하지안는모양이다 그런데 작년중에는 남조선의 대수해를비롯하야 서북오도의 랭해(冷害)흉작등의 전농민의작물은 최소사할 최고 칠할의피해를입어 상상이상의 궁민을 내이게되엇다한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것은 중북전남경남황해도등은 세궁민의수가 작년보다 그다지 만치안흐나 평안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북도의 오도는 비상히격증하야 함남북은 실로 작년의 이배에달하는 상태라한다 이것은 결국 농촌의궁핍이 점점만성화하는증상으로 볼수잇는것이다

勞働祭를압두고 靑年數名을檢擧
레닌탄생일등압두고경게중에 警察部에서活動中

오는 이십삼일의 『레-닌』탄생긔념일과 오월一일 『메이데이』등을 압두고 긴장한 가운데 감시를엄하게하고잇는 경기도경찰부에서는 돌연수일전부터 악주활동을하드니 시내 종로사정목칠번지에서 무역상 김창석(金昌錫)(二七)을 와룡동(臥龍洞) 이십칠번지에서 학생 강용덕(姜龍德)(二○)무직 최홍설(崔洪薛)(二二)을 충신동(忠信洞) 십팔번지에서 권영규(權榮奎)(二三)등수명을검거하야 방금엄중취조중인데 사건의내용은 일체비밀에부치나 그들은모다홍원(洪原)출생으로서 련해오는각종적색기념일을압두고 지방의 좌익청년들과 련락하야가면서 모종의계획을한혐의가잇다는것이나 아직 자세한것은알수업다

進明女子高普校 三十週年記念式
래이십칠일오전열시에 記念바사會도開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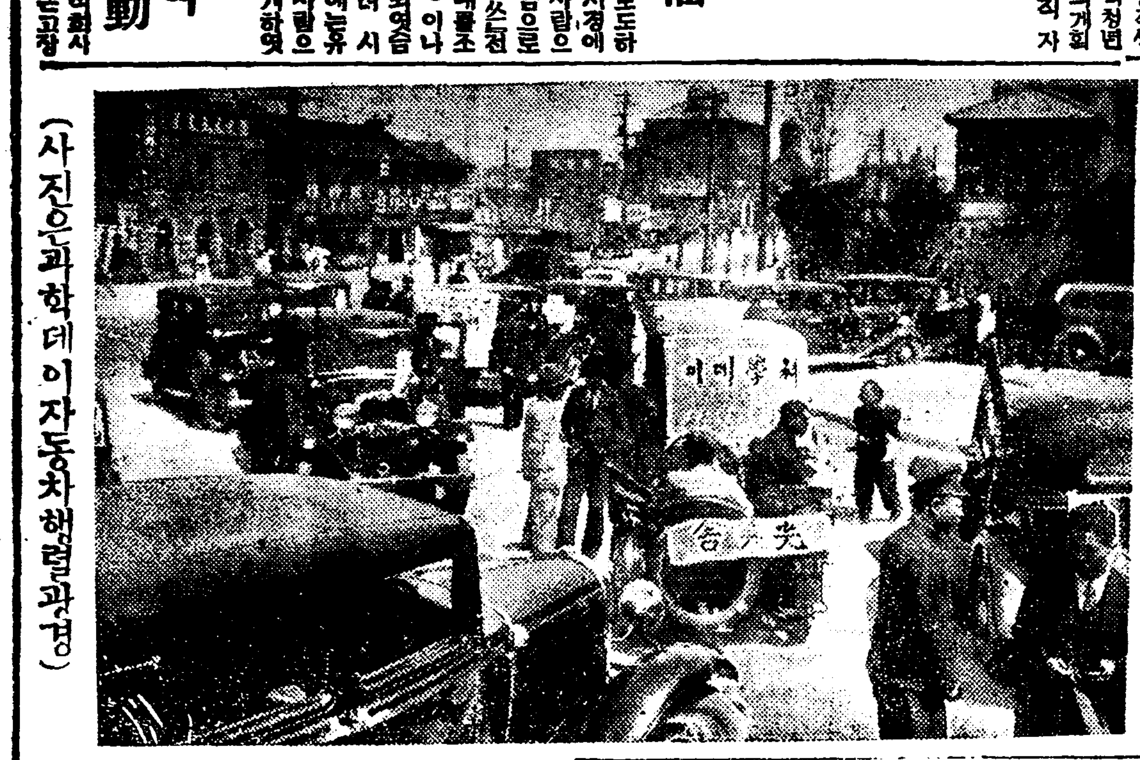
시내 창성동(昌成洞)에잇는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進明女高普校)에서는 래이십칠일 오전열시부터 그학교안에서 그학교 창립삼십주년긔념식을 성대히 거행할터인데 그학교출신은 다수참석하기를 바란다하며 또긔념사업으로 이십칠일부터 이십구일까지 사흘동안 긔념전람회와 바사-대회를 개최하리라고한다

屍體發堀開始 家族들은慟哭

【會寧支局發電】 회령유선탄광제삼항(第三坑)내의불은십오일오후 열두시경이되여도 꺼질형편이업서 할수업시 목신쳐되는곳에 공긔가통하여가지 못하도록차단 하엿다 함은이미 보도하엿거니와 십팔일 오전열시경에항내에 잇는시체는 보통사람으로는 도모지발굴할수 업슴으로남만주무순(撫順)탄광에서『가쓰』전문긔사두명을 초빙하야 항내를조사한결과 그날오후여덟시경 이나되여 불이꺼진것이 판명되엿슴으로직구일 오전아홉시부터 시체발굴에착수하엿는데항외에는유족들이울며 부르지저 보는사람으로하여공 정의눈물을흘리게하엿다

送電線絶斷되여 停電으로騷動

【沙里院】 서선전긔합동주식회사의경영인사리원도시의전긔는고장이빈번하야일반수용자의불평이만허오든중인데 지난십륙일에는 오후여덟시오분부터약사십분간이나 사리원천지가암흑세계로화하엿다는데정전(停電)의리유는평양으로부터 재령까지가는 송전선(送電線)의중간계동(桂東)과 사리원간에 잇는송전선을어떤자가약이백미돌가량을절단 하여간까닭에 정전되엿든것이라고한다 회사에서는 즉시 복구공사를 급히한결과 곳회복되


(사진은과학데이자동차행렬광경)

齒醫一部試驗 合格者發表

일전총독부에서 시행한 치과의사(齒科醫師)시험제일부시험합격자는십팔일에총독부에서발표하엿는데합격자중조선인은다음과갓다

金容杞 朴次庸 金貴孫 崔翔華 沈成勳 高洪烈

우리氷上界의覇者 金正淵君昨夜重傷
東京芝浦室內링크에서練習中 右側脚部에負傷入院治療中

【電通東京電話】 우리 빙상계(氷上界)의지보 김정연(金正淵)군은 명년이월로 림박한 세계올림픽대회를목표로 동경 지포(芝浦)실내『링크』에서 련일맹련습을 거듭하든중 작십팔일오후열시경에 불행히도 벽과 충돌전도되야『스케-트』곳으로 바른다리를찔러중상을 입엇다 곳순천당(順天堂) 병원에 입원치료중이나 상처의깁히가 이『인치』나되야 그치료경과가 염려된다 (사진은 중상한 김정연군)

窃盜한데차준돈 二百圓차저가우

이돈이백원주인은누구일가서대문경찰서에서는 십팔일에 충남론산군(論山郡) 출생으로 주소부정 황학영(黃學永)(二○)을절도범인으로 잡아다가 취조중인데그는지난십이일오전열시반대전역(大田)을떠나서울로오는 삼등 차간에서성명부지의 어떤려객이 만흔돈을가지고잇는가운데서 포켓트에손을너허 이백여원을 몰래 훔처낸외에 다른곳에서도물건을 만히 훔친사실을 자백하엿다 그런데 그가훔친 현금이백여원은 그냥가지고 잇섯슴으로 경찰서에서 압수하엿스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업서서 돌여줄수도업스므로 그지화뭉치는방금 서대문경찰서 사법계주임의 책상에서데굴데굴굴고잇다한다

朝陽村의共軍 富豪의妻拉去

【延吉】 지난십팔일오후십일시경에 돌연공산군오륙명이 간도조양촌(間島朝陽村)에 나타나 만주사람으로서의 당지갑부라는 마가(馬哥)의집에 침입하야 그의처와 그집에잇는 머슴사리군을 납거한사실이 잇다한다

八萬町步耕地에 二十萬火田民收容
北朝鮮開拓事業地에

북조선 개척사업의 중요부문을 차지한 화전민의정책방법에 관하여는 전번에총독부에소집된 주임관회의에서결정된방침에의하야우선북조선 개척지역내를 방랑하는 사만호 이십사만인의대집단 화전민을수용하고 농경지 팔만정보를주어개척의 선구자로 맨들고저신년도가된후 각영림서(營林署)가 주체가되야 방금사업을 진행중이다 개방할농경지팔만 정보는 황폐된화전을 숙전(熟田)화식히는 일방방풍림지(防風林地)와 농용림지(農用林地)등의 시설을 진행할 방침으로 오개년간에 이십사만인의 북조선화전민을 토착농민으로 만들계획이다

義州鑛罷解決

삼백오십여명 광부가 총파업중이든 의주(義州)광업회사의 의주군옥상면중대동(玉尙面中台洞)광산의 로동쟁의는 십팔일에회사측에서 양보하게되여 적당한시일을지난후 곳임금을상당히 인상하겟다고선언하야 광부측에서도 십구일부터 일제히 취업하게되엇다한다

街頭에展開된 科學朝鮮의風景
今日科學데이大行列

과학조선을 건설코저 해마다사월십구일을 과학데이로정하고 과학에관하야 강연、방송、사진영사등모든과학보급운동을하여오든바금년에는 일층더 대규모로보급운동을 하고저 자동차행렬을하기로 되야십구일 오후한시에자동차 수십대에 과학데이 선전문구를 뚜렷하게 써붓치고광화문통(光化門通)네거리를출발하야장사진을 느리고시내를 일주하야장안 시민의 머리에 과학에관한인식을 새삼스러히 일께워슬다 밤에는오후 일곱시반부터 종로중앙 긔독교청년회관에서 과학강연회가 잇스리라한다

서울구경왓다 길일흔네노파
어데로갓는지알수업다고 경찰서에수사원제출

서울구경이조타고 올라온 시골할문이 길을일코 도라오지안는다고수사원을 제출한것이 십구일아츰종로서에만 네사람이나 잇섯다 충북 제천(忠北堤川)에서 서울라와서 경운동(慶雲洞)구십륙번지에 묵고잇는 정씨(鄭氏)(五○)김씨(金氏)(六七)등로파세분은 십륙일오후에 거리구경을나온것이 아직도라가지아니하야 그집주인이 수사원을제출하엿고 수송동(壽松洞)어느려관에 와잇는 서산(瑞山)사는김씨(金氏)(六七)라는로파도 벌서십오일에구경을 나온것이 역시도라가지아니하야 그주인이 수사원을제출해왓다

天氣豫報
曇一時晴

高氣壓은日本의東北地方及黃海朝鮮에擴大되고잇는데그勢는弱하며 滿洲北部는氣壓이얏고元山 海岸과國境中部에는小低氣壓이잇다 朝鮮海峽은흐리고其他는日氣가조타江陵十四度와雄基의二度間에잇다明日은좃흘듯하다

昨日最高 一八、三
昨日最低 二、五
今朝最低 四、○
今日正午 一五、一

人道橋下沙場에 腐爛女兒屍

십팔일오후두시경 한강인도교동편모래사장에 어린이시체가 유괴되여잇다는등 행인의 보고를바든류산서에서는 즉시서원이 현장에 출동검시하엿는데 그시체는생후약 일주일가량된 계집애로 버린지가오래서 벌서모다 썩어버렷는데 대개임신한지 약팔개월만에 조산한것을 버린것으로추측된다고한다

警官累弊를警戒 殺人警官에四年
元定平警察署員卓斗源에게 京城覆審에서判決

작년십이월십일에함남정평군부내면태양리(定平郡府內面太陽里)구장 한명락(韓明洛)(二二)을 경관에게 공담하엿다는 리유로 포박하야 따려서죽엿다는 정평경찰서(定平署) 순사이엿든 탁두원(卓斗源)(二七)에관한 독직상해치사(瀆職傷害致死)사건은지난십칠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일심판결대로 징역사년의 판결을언도하엿다 판결을 언도할때에 지전(池田)재판장은 요지음 경관들이 직권을람용하야 무고한 량민을 해치는 폐단이 만흠으로단연히 엄중한처벌을 하지안흐면안되겟다는듯을엄설하엿다

길일흔안해와 자식을차저주

안해와 자식을차저달라고 경찰에애원하는남자―부외공덕리(孔德里)사백이십구번지 윤모(尹某)의집 곁방에잇는 홍순근(洪順根)은 지난삼월이십칠일 그의고향부여군외산면삼설리(扶餘郡外山面三設里)로부터 서울로살길을차저 그의안해김씨(金氏)와일곱살먹은 아들과세살먹은딸등세식구를데리고 전긔주소에셋방을살면서그는서강(西江)도로공사장에서 로동하야 그날그날살어오든중그의 안해김씨와어린이두명은지난사일에 어데를나간후 길을일헛는지돌아오지안는다하야 십구일아츰 소관종로경찰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엿다

旅客의뒤만딸으든 트렁크專門窃盜
사십여개를도적한범인 本町警察에서逮捕

작금경성역과 시내각려관에『트렁크』도난이 빈번하던바십팔일오후여덟시반경에 신정(新町)유곽부근에서 그진범인이 본정서좌좌목(佐佐木)형사에게 포박되엿는데그는 함북종성(鍾城)출생의 일정한주소가업는최근영(崔根英)(三○)으로 타고난미모를 리용하야 훌륭한의복을입고 신사의외표를 갓추어가지고 주로 경성역이등대합실을 배회하면서 려객의『트렁크』를절도하고 시내각려관을 순회하면서 전긔와가튼범행을 하여오다가 고물상에팔아서 주색에소비한것인데 우선취조에따라 자백한것만해도 전후사십여건이나 된다한다

今朝鍾路管內 防犯大檢索

종로서에서는 십구일새벽두시부터 일곱시까지의 사히에서원을비상소집을해가지고 관내를 일제검색하야 때아닌 야반의『싸이렌』소리에 으르둥근시민의꿈도 산산히깨여젓는데 알고보니 이는 방범(防犯)『데이』를제한검색으로서 고등계관계로 여들명이 검거되엿고사법계관계로는 종로이정목 동아부인상회에 침입하야 잡화일백사십이점을 훔치다가 붓자핀 돈의동(敦義洞)일백삼번지 우한성(禹漢成)(二○)외에도두엇명이붓잡혓다고한다

朝鮮産業博覽會
明二十日부터開催

조선신문사(朝鮮新聞社)에서주최하는 조선산업 박람회는이십일부터개최하야 래월십삼일까지오십일간에 경복궁에서 열게되엇다는데 이십일오전 십시에는 목산(牧山)회장주재하에 개회식을거행하리라는바 입장료는다음과갓다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團體(三十名以上)一名二十錢 ▲學生團體一名十錢 ▲軍人學生一名二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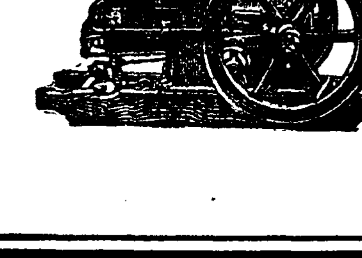
龜城地方에는 播種이極困難

【龜城】 평북구성일대는금년봄이래로 비가나리지안어일반농가는 초조중인데 더욱귀성군일대에는 매일한방조일만 계속되어 흙이파종은도저히 할수업는형편이므로 농민들은 매일하늘만보고 초조중이라한다

通川金州學院 維持基金募集

【通川】 통천군내에잇는금주학원(金州學院)은 무산아동에게 유일한 교육긔관으로 되여잇스나항상경비부족이 생겨 유지하기가 암담하든중 김선득、김병유(金炳裕)등씨의후원으로교사까지 새로중축되여 생도까지도 더수용하게되엿다고 한다그러나 긔초를 더욱공고하기위하야원장김선득씨는 지난십륙일 오후칠시에 금주학원에 지방유력한제씨를 초청하야 금주학원유지회를 조직하고 긔부금을모집하기로 결의하고 산회하엿다는데임원은 만히후원하여주기를 바란다하며 당선된임원의씨명은 다음과갓다

▲會長 金蘭甲 ▲幹事 金淳昌、宋寅赫、李之昊、金仲培 ▲顧問 劉敎坤、金炳裕、沈雲澤


クボタの…. ディーゼル機関 石油發動機
伊佛獨米英日 特許アークロ式
農林省認定品 商工省指定優良國産品
(文獻送呈)
合名會社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局長 882番 4784番
本店 大阪市西區立賣堀南通町二丁目 電話新町 901·902·903·904·3127
支店 東京·名古屋·神戶·大連·奉天·臺北 札幌·八幡

補缺募集 文部省認可 興文中學校 第一學年以上若干名 廣島縣吳市平原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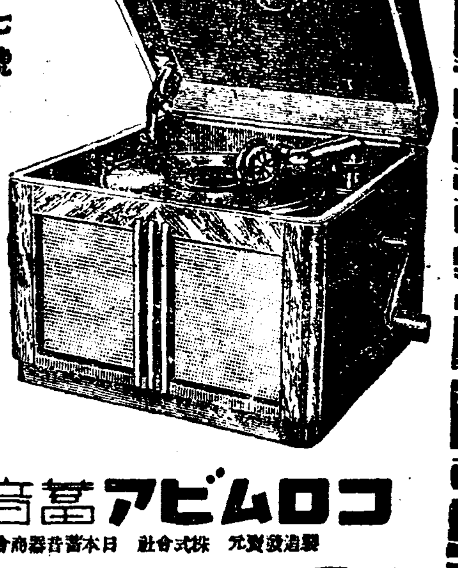
開講(午後)四月二十五日 ▲特典協成實業學校本科補缺編入
協實講習所 商科生徒募集
出願 四月二十四日迄 ▲場所 協成實業學校 (京城樂園洞)

安全面刀普及及宣傳廣告
본지廣告를떼서 郵便切手十錢同封左記에送付하시면 實物見本으로 ミモサ安全面刀替刃三枚를目下全鮮賣捌店에特賣中으로 ミモサ安全面刀器及替刃의奉仕特賣規定書를添付하야送付함 (但一人一回限、ミモサ替刃에도마즘)
東京市芝區田村町二ノ二 十文字製作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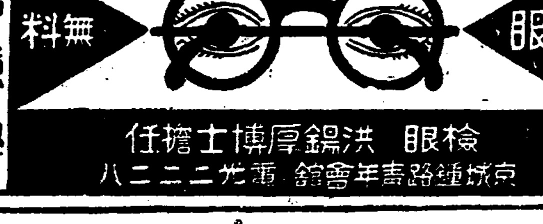
面刀하기便利하고 安心되고安全面刀로

고구마순 甘藷苗 販賣 養成 定價表進呈 開城南山町 興林農園 振替京城一五○三七

貸家 월세집
瓦家七間一座十圓電車一區、新鮮한空氣 神效한藥水、淸潔한住宅、市近한別天地 衛生施設完備하오니散步象來覽하심伏望
京城東滿江神社南越便藥水洞名黑石里
仙庄藥水洞住宅經營所


音樂의봄을 滿喫식히는 豪華意匠의 超性能器!
모-든點에卓越한本器의性能과意匠은斷然蓄音器界를리-드하고잇다.
꼭一次試聽을.
第一一七號 金八十圓 (二重모-타-裝備)
第一二七號E 金一○○圓 (電氣모-타-裝備)
意匠登錄番號 六四一七八
コロムビア蓄音器
製造發賣元 株式會社日本蓄音器商會

問題의麗人歌姬 高一心
第一回吹込 Columbia
俄然人氣沸騰!!
꼼꼼타령
(레코-드番號 四○六一○)
青春打鈴 姜弘植
舞踊方式添付
1.50 콜럼비아레코-드

洪錫厚診察所眼鏡部
主任 曺秉學

檢眼 無料
檢眼 洪錫厚博士擔任
京城鍾路靑年會館前 電話光二二二八

試驗에 はれやか 착기편 合格

新學期開講學員大募集 (但要二錢切手同封) 內容見本申込次第無代進呈
朝鮮中學講義
一年半修了 二月一回發行
學費一個月 一圓二十錢
京城府鍾路一丁目六ノ三 朝鮮通信中學館 振替京城二五○二八番
師高明 修業短期 解釋平易 學費低廉
無産大衆의自由學園으로、읽으라!! 本講義錄을 모든成功은中學知識으로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話光化門二一四九

大正館 本町
日本巖窟王 (前篇)
原案指揮……河合德三郎 脚色監督……中島寶三 桂章太郎一人四役主演
松村光夫、春水輝子 伊丹慶治、三城輝子主演 桂木輝夫、香河まさ子
國境飛行隊
八軒夜店

질투가심하면 가정파란이된다

—어떤청년의편지글내용—

나는 오늘아츰 어떤아지못하는 남자로부터 다음과가튼 비극적 문구가 려적힌 장문의편지를 바닷습니다。

『저라 나는 금년서른세된 청년으로 연애결혼한 남자입니다。벌서 우리는 결혼한지삼년의 세월이 흘러갓는데 오늘까지 매일매일 싸홈을 하지안흔날이 거이 업습니다。연애의 달콤한꿈속에서 결혼한 우리가 삼년의세월이 흐른동안 매일매일 싸홈으로 날을 보낸다는것은 우리들의 교양정도(나는 대학을 나왓고 그는 전문을 나왓습니다)로 보나 도가정적으로보나 참으로 창피한일입니다 그러나안해는 나를 못살게도 내얼굴만 보면 들볶아서 견딜수가업습니다。이제안해가나를못살게구는 리유를 들어보면내가 결혼전 아니 지금안해와 연애할때에 어떤녀성을 사랑하게된 일이 잇습니다 그런데 그녀자와는 그후 곳인연을 끈엇는데 안해는 그후오늘날까지 내가그녀자와 밀회를하며 싸차 자긔를 버리고 그녀자와 결혼하리라고 나를 의심하는것입니다 긔실나는 과거에 한번잘못한것을 뉘우치고결혼이후는 내량심상 부부도에 어그러진 일을 한일이 업것만 내가밤에 조금만느즈게 드러가면『그녀자한테 갓섯느냐?』고하고 만일 제시간에집에 드러가면 『왜그녀자는 오늘어듸를 갓드냐?』 고나를 못살게굽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내가사랑하든 그녀자는 아즉 결혼을 하지안코잇서서 내안해의 의혹은점점 깁허 갑니다。 긔실나는 내안해와 결혼한후 그녀자를 만난일은 전연업것만 내안해는 의심을 품고 나를 들볶그며 자기집으로 가느니 양행을 가느니하고 떠듭니다 그리고는 집안일이란 손톱만치도 돌아보지안코 내옷이라거나 내가먹는것이라거나에대해서나내가아츰출근을할때거나 나를보적도 안옵니다 그리하아 가정은 문자 그대로의비극이오 북빙양의 어름바다입니다 선생님! 북극양 한어름우에도 희망의배는 출주지안습니까? 그러치만 우리의가정은 이가치도 비극속에 지내이게 되니 이안해를 단연이혼할가요? 나는 이혼이 비국인줄로 알기때문에 되도록 그를 위하고 그를위해도록 마음이 돌아서도록 노력하건만 모ー든것이 허사입니다 말으로 이것을 어떠케하면 조흘니까? 하략 A生』

나는 이편지를 읽고 현대조선의 신가정에서 안해때문에고민하는 남성이 그얼마나 만흘것을 생각하고 이편지에대한 해답을 써보기로햇습니다。

A생의 가정은 안해가 결국 너무도 의심만흔녀성、도신경과민된 녀성、그리고 너무 남성과가정을 울리해하는 녀성임을 알수잇습니다 한가정을 유지해 가려면 부부간의 잘못이잇서도 그것은서로용서해 주어야할것입니다 더구나 조선의녀성은 가정에잇서서 남성에게대한 지극한 정성이 잇서야 합니다 웨냐하면 남성은 밧게가 로동하고 때로 집에서 일을 잘하느니만치 더구나 부부의 잘못에 정은 자긔희생적정신이잇서야 되는때문입니다 집안이가난해서먹을것이 업서서 굶주리게 되는형편에도 부부는그가시길을 헤여나려고 애를쓰거든하물며과거에사각지 련애가 겨렷든그일시적상처때문에 자긔는유리자이면서그남편을 괴롭핀다는것은결국안해가넘우편안하고 할일업는때문에 그런생각이나하고 잇는것입니다。조선의 신녀성은공연히공부를.햇다고 천상천하에 제가제일인체하고 부모도형제도 남편도 다 저만위해 달라는따위의 간신녀성이 만히 잇습니다 아마도 A생의 안해도 이터업의 한 녀성인것갓습니다。A생! 당신은 너무나안해에게충실합니다 당신은 너무도량심적입니다 안해가당신을정도안코 조금도 두려워도 안는것입니다 감화가되도록마음이튼튼하도록 그마치애를써도 안된다하니 당신안해는 결국정상적인간이 안인것갓습니다

그러하오니 당신은 이망태를 연출하는 그안해와 리혼을한다고위협을하고 한반년동안 별거생활을 하십시오 그래도 안해의마음이도라안서면 그때는 정식으로 리혼하십시오 가정이평탄치못하고 안해가남편을 그가티를볶는다면 당신은 아ー모일도할수가 업슬터입니다

家庭

돈허피쓰는버릇은 어려서 자주 군것질 한탓

간식이건강에해로운것은물론 정신에도악영향잇다

간식 이라는것을 속칭으로는 군것질이라고하느니만치 이말부터 그다지조흔인상을주지못합니다。 그와갓치 간식이란 여러가지폐해가잇는것이고 결코조흔것은안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부자ㅅ집에는 항상 약과니、전과니、떡이니 과실이니하는 간식품이

풍성풍성하여서

어린애나 어룬이나 닥치는대로 입이쉬일새가업시 군것질을 하는집도잇섯겟지만은 요사이는날반으로 가정제도가 간단하게되고 따라서 생활양식도 점점단순하게되여감으로 집안에서 이러한간식품이 늘떠러지지안케되기는 어려운동시에 가가에서파는 싼과자나 과실갓흔것이 대부분으로 제공되는것갓습니다。

×

그러나 한번도리켜 생각해간식이라는것이 엇지서생겨나롭살펴본다면 물론

여러가지원인도

잇겟지요만는 대개 이하의 멧가지를들수가잇스리라고생각됩니다。

첫재 어린이를 젓먹일때부터 일정한 시간을 헤아려서먹이는 규칙적생활을 훈련하지안엇다는것과 둘재로는 어머니되시는분이 혼이 게울너서 애기를보살피기가귀찬으면 우선 빼스켓쪼각이라도주어서 빨니게하는것입니다。이러한원인에서 군것질하는버릇이느러가면 나중에는 세끼의밥은안먹고 간식만밝키게되는것이니 그먹자는대로 다사대자면 하로에 한애가

오전식까먹는다

고하드래도 一年살림으로보아서는 그것이한달이나일년으로치면결코 적은수자가안입니다 그래서그것이 다시 소비심리(消費心理)로변해지는것이며、심하면 귀한손님이왓슬때에 도음달나는버릇이생기든지 그럿치안으면 어룬의눈을피하여가면서 군것질할것만찻게되는것이니 자연이 학교에다녀도 열심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활발이 뛰고놀지도못하는것입니다。

×

이러한 정신적으로만 낫븐것이아니라

생리상으로도보아

서도 낫분것이니 어린애가 간식으로 제일조화하는것은 과자입니다 이것은 첫재 그맛이달어서 미각이조흔때문입니다。그러나 보통파는과자는 이러한 미각만생각하고 영양가치(營養價値)갓흔것은 염두에두지안음으로 영양분이란보잘것이 업는것인데 간식으로 과자만작고먹으면 정말영양분이잇는 조선음식은먹지안케되니 그발육상으로보아 조치못한것입니다。

그뿐아니라、요사이 어린애들을보면 대개 이가 아주문허저서부잡것이업는데 이것은 전혀 간식으로 단

과자를마히먹는

때문입니다。당분을 만히먹으면 이에잇는 법낭질(琺瑯質)이업서짐으로 이가삭어내려안는것입니다。그래서 이러케 이가불건강하면 거긔에인해서 여러가지병이생기는것인데 특히간식을만히하는아희는 위가튼튼하지못한것이니 나중에는 큰고질을엇는것입니다。

×

그러나 어린이의 간식을 전연업새기도 아주어려운 것이니 만약 간식을 식히시라면 매우 규칙적으로서

하로에한번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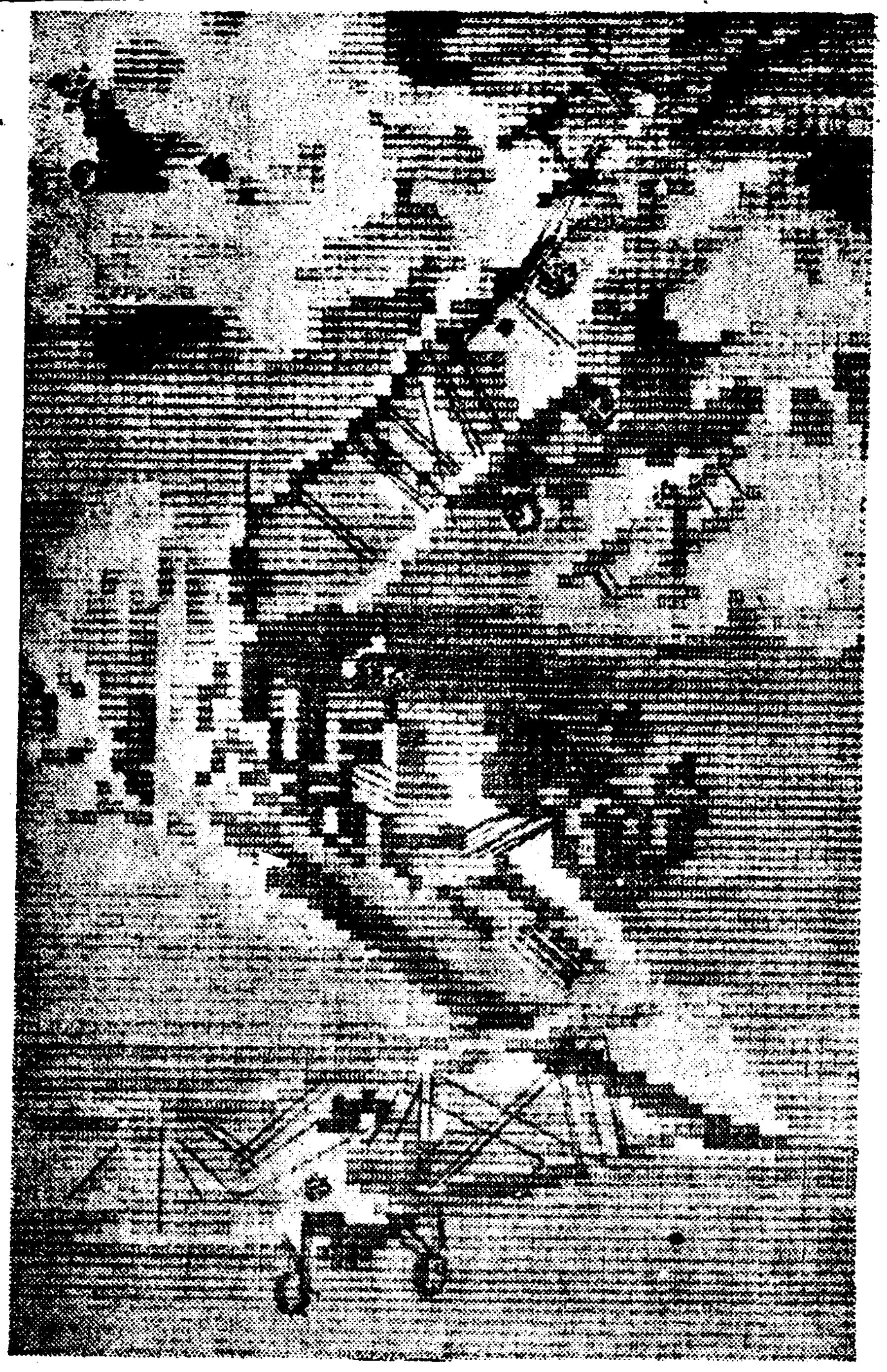
하는것이조흐나 이상의주의로보아서 될수잇는데로는 달지안은것을주는것이조코 또한 돈을주어서 직접사먹게하는것보다는사서주는것이조흔데 그것도 과자보다는 과실이나으며 시간은식전이시간쯤이라고하니 아마 오후세시쯤이제일적당하겟습니다。

家庭 메모

기게바느질을하다가 바늘이 잘부러질때

재봉틀바느질하실때ㅡㅡ기계가 납부다든지 바느질감이 두거워서 바늘이잘부러지는수가잇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미리 바늘끗에 뭍켜는 양초를몃번문지른뒤에 기게를돌려보십시요 한결순하게 박어질뿐더러 부러지는일이 별로업서집니다

◇또한가지ㅡㅡ이와는다른것이지만 재봉틀을쓸때까다 업시 실이잘끈허지는수가 잇습니다 이것은 바늘과 실을 잘못마치는까닭인데 가령말하면 가는바늘에굵은실을 쓴다면 끈허지기를잘한다든지 잘안된다든지합니다 ☆



몰라서 그러치 알고보면 보약이다

다시마를만이먹자

‖인체에필요한요ー도홀몬

동해안쪽으로다시마가만히나는 조선서는 이것을일반가정에서 그러케만히먹지안는데 이것이영양상으로보아 대단히유효하다합니다。

×

지난십사일 일본약학회총회(藥學會總會)에 발표한논문에의하야 이것은 퍽옥명확하게되엿습니다

×

그러면 어찌하야다시만가영양가치가 만호나 하면『다시만』에는요ー도가 함유해잇는때문입니다 지금까지상식적으로 누구나알고잇는바 아자만익요ー도녹에함유한『홀몬』은『지로키신』이라고하는데 이것이신체의갑장선(甲狀腺)에 저축되여잇다가 건강을 보유하는데에 필요한 긔능을하게됩니다 만일 누구나 이긔능이업서지면 특별한 병이생깁니다。

×

만주국렬하지방(熱河地方)에 풍토병으로『고이다ー』라고하는 혹이생기는병도그것의하나입니다 특히 어린이에게 이것이 업거나부족하면 신체만이 안이라、정신에도 큰상해가 생기는것입니다

×

이갑장선의 주요성분이녹『요ー도』는 음식물과가치 우리동물의 체내에 드러가면 그대부분은 갑상선에 침착하는것이므로 그량은『마린쏫(藤)』의 개에대해 실험한결과체중六백八십七분의一에불과하나갑상선이 준『요ー도』의 一八、五%를 흡수하야 이것을갑장선의 려포중(濾胞中)에 교장물질(膠狀物質)로써 저축해 두므로 갑장선중의『요ー도』는 다소는 음식물가운데 함유한『요ー도』당에 관계되여 이『요ー도』가 만히함유한『다시마』를 만히먹으면거강한몸을가질수잇습니다。

깨쏘다지는 海外뉴ー스

여든다섯살에 이가새로낫다

【슈ー베리아ー(위ー스콘신州)聯合郵信】미국위ー스콘신州슈ー페리아ー의씨·에취·라이트라는 금년팔십오세된로인은 고무를너어두엇든 어금니와압니가 압흐기시작하기에 치과의사에게가본즉 새로이가 그밋헤서나는것을 발견하엿다고한다

라이트로인은 그러고보니일생에이가세번이나 낫다는것이다。

曆

四月二十日(土)

舊三月庚辰(大)(十八日) 丙寅·火·胃·開

◉移徙·裁衣·上樑未時·開市·納財에宜함

▲淸明 六日(舊三月初四日)

▲穀雨 二十一日(舊三月十九日)

타자긔로그린그림

대판부(大阪府)어떤 상업학교에다니는 대서(大西)모라는학생이『타이푸라이터ー』의엠(M)짜만가지고 이쉬사시간동안 내리찍어서『비행기가 군함을 습격하는 광경』이라는 야단스런장면의 도안을 맨드럿습니다 힘드려찍고 허스히찍는테따라 농담(濃淡)으로 원근(遠近)을내엿습니다 이것도 한재조지요만 그학교선생도 이그림을보고 김버서 누구에게나 자랑을 한답니다

交換台

아현리연희면간은 언제도로를고치오

경성(京城)마포(麻浦)간 도로는 도당국에서 일등도로를 만드러 주어서 감사합니다만 아현리(阿峴里)서 연희면(延禧面)으로가는도로는 언제나 고처 주시려는지요 교통이 불편해 견딜수가 업습니다 지금은 연희전문 리화전문 신촌역 연희방송국 기타중요긔관이 만히잇서 대단히 교통이 복잡합니다 더구나 자동차 마차가 길어줌아 가지못하고 또사람이 부겨서 단일수가 업습니다

더구나 남자도 곤란하겟지만 녀자로써는 단이기가 여간곤란하지 안흡니다 아모리 개화된 세상이라해도 남의남자를 막부비고 단이야 하니참말 여간한 고통이 아닙니다 만일 이러다가 자동차 마차에 사람이 치이게 되면 어떠케 합니가? 어떠케 경긔도당국에서는 이것을 실지로 나오하보서가시고 일등도로로 고처줄수업것습니까? (阿峴里九〇番地 新秋晩 金哉英)

아직방침이업소

아현리서 연희면으로 가는길은 경성(京城) 양평(楊平)간삼등도로이므로 일등도로에 비하면 대단히 좁을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관계로 그도로를 개수개축할 방침은 서지못햇습니다 그러테 놀원해서 그곳이 경성부에 편입되면 어떠케 될런지 몰우겟지만 도당국으로서 어떠케 할방침은 업습니다 그러나 경성부에 편입된다고 해도 파일등도로로만드러 줄는지는 지금나로써는 말할수업습니다 아무코 사실로 그러케 불편하면 당국으로써도 자연 고려하게되겟지오 (京畿道土木課 伊達技手談)

謹告

지방에게신 독자여러분 투서는 그지방지국으로 직접해주십시오 그리하면 그 지국에서 조사해서 본사로보내요 게재하야보도록합니다 (一記者)

少年小說

異域에피는꼿 ④

崔秉和

(四) 사라져버린 希望

대회ㅅ날은 압흐로 닷새밧게남지안헛다。오날도 홍수는 하학후 두시간동안이나 계속하야연습을하고 집으로 도라오는길이엿다。

『여보 금례어머니?! 개울건너 솔밧속에 버섯이 만타는구료。어적게 뚤뚤네집에서는 한광주리를 따다가 일본사람에게 상원에 팔앗다는구료』하고 안악네가 개천에서 빨내를하면서 이야기를하는소리를 들엇다。홍수는 귀가번쩍띄엿다。

『그러다 래일이 공일이니간 하로 종일 버섯을따면 한광주리는 실이되겟지』하고 홍수는두주먹을 불근쥐엿다。그의얼골에는 히망의우슴과 결심의빗이 살작 떠올랏다。

홍수는 작년 학교에서 원족으로갓슬때 버섯이 시들고 썩은곳을 생각하엿다。필경 그곳은 아무도 알사람이업겟지。그곳으로 가보자。

그이튿날 홍수는 벤도를 싸가지고 치롱을 둘너메고 낫과 호미를가지고 혼자서 집을 나섯다。산은 깁고 길은 멀엇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안코 피곤해하지도안코 차츰차츰 버섯나는곳을 차저드러갓다。이곳저곳에는 간단히 령란(鈴蘭)쏫이 아양스럽게 피여잇고 이상스러운 산새들이 유쾌하게 재절거리고 잇섯다。

얼마를 거러가서 홍수는 낫익은 장소에 이르럿다。치롱을 내놋코 이곳저곳을 더듬어 보앗다。그러니간 큰것은 손바닥만한것이 한나무에 열식 스믈식 주렁주렁달녀잇섯다。홍수는 너무깃븜을못이이여 숨도 제대로 못쉬고 벌벌 떨리는손으로 홍홍파서 부스러지지안케 하나식 하나식 따서 치롱에너헛다。얼마를따도『버섯은 무진장이엿다。

점심때가 지낫는데도 홍수는 벤도를먹을것을 이저바리엿다。그근처에잇는 버섯을 거지반 다따서 치롱에너흣간 치롱에 거잔차게되엿다。『좀더 딸생각이잇섯스나 욕심을부려도 소용이업시 되엿다。치롱이묵어워서 홍수의힘으로는 질머질힘이 부족하엿다。

그리하야 홍수는 더딸것을단렴하고 무거운 치롱을 질머지고 집으로 향하얏다。

다렴할수밧게업는 스파이는이제 새희망을가지고 가슴속에서 용소슴치고 잇섯다。

『아버지께 자세한이약이를하고 버섯을팔아슴시사고하자。싸게마팔아도 이원이상은 바터오시겟지。모자라는것은 아버지께 채워줍시사고하자』

홍수의 눈압헤는 새스파이를 신고 하얀 회금칠친 주래울다룰칠 하는 자기에 날냅 모양이 활동사진가티 보여와다。생각만하야도 엉덩춤이 저절로날만하엿다。오든길에 수업시 쉬면서 땀흘리고 겨우 집에를 와보니간 허선생님과 리선생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님께 무삼이약이를 하시고 계시엿다。

뜻밧게 대하야 축할할것을정식으로 의론하시려 오신것이엿다。홍수가 치롱을내려노코어선생님에게 인사를하엿드니

『오날은 버섯을 따라 갓섯구나』하시면서 허선생님 께서얼골에 미소를 띄우시고 치롱을 드려다 보시엇다。허선생님께서는 별안간 큰소리를 내시면서

『야! 이런버섯을 어디서 땃니? 참 그놈 크고조다』

리선생님께서도 엽프로 오시며서 버섯을보시고 깜작놀나시엿다。그리고

『이런버섯은 나는생전 처음보는걸』하시고 그중의 한개를 집어보시엿다。아버지와 어머니께서도 드려다보시면서 역시 놀라시엿다。

허선생님과 리선생님 께서는

『이런버섯은 맛이훌륭하겟지。지저먹든지ー찌게에너어 먹든지……』하시고 말슴하시엿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여보! 선생님에게 좀드리게신문지를 가지고오구료』이말을드른 홍수의얼골은 갑작이 변하여젓다。암만선생님이 시라도이버섯마는 드릴수가업다。그러타고 이자리에서 드리지 말라고 할수도업다。

『홍수가 힘드려 따온것을무얼 주십닛가?』

『선생님! 별말삼을 다하십니다그려。또 따오면 고만이지요』

하시고 자기아들을 가르켜주시는 선생님이시라 조금도 악가워하시는빗이 업시신문지에다가 듬북싸서 드리엿다。치롱을보니 반이상이업서젓다。홍수는 눈물이 쏘다저나올듯한것을 꾹참엇다。

태인의것을 빌녀신을수밧게업다。그날밤 홍수는 몃번이나 몃번이나스파이를신는꿈을 꾸엇다。

(계속)

우리차지

원덕이는 벼개를 겹처노코서 올라섯습니다。

『엄마…엄마!』

『웨』

『나、키크지』

『키크면 뭣하늬?』

『아버지돼지』

『아버지되면 뭣하늬?』

『돈벌지』

『돈벌면 뭣하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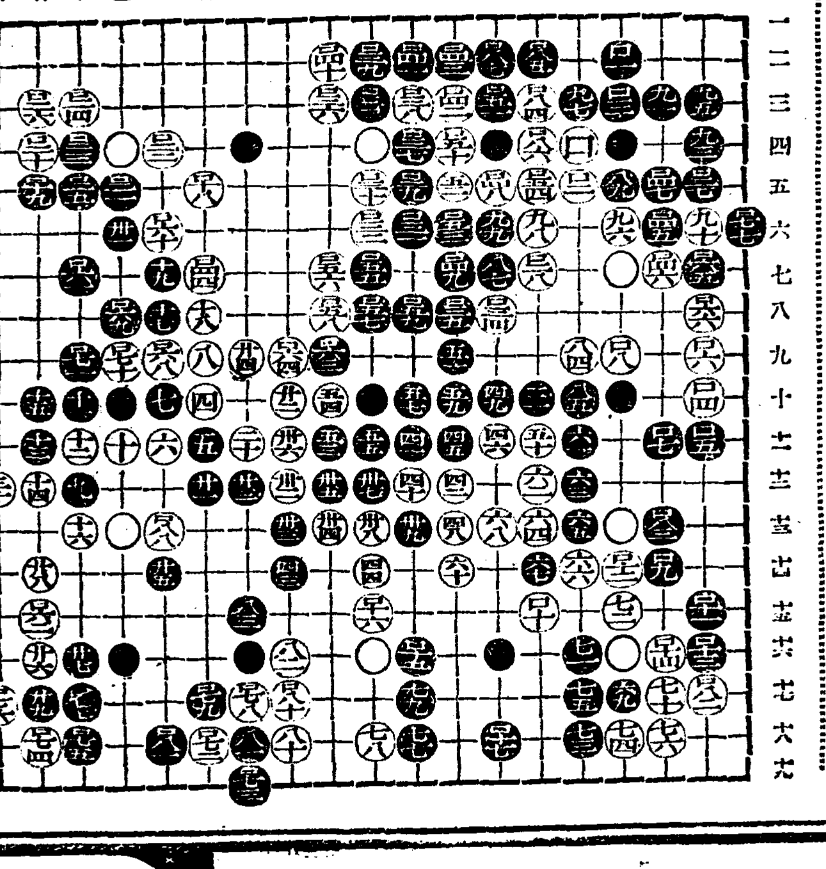
『돈벌면 엄마 갓다 주지』

글그림 (牛影)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2)

白 丁李春

黑先 李潤鎔



【●一六九】巳의 八　【○一七〇】巳의 九　【●一七一】午의 九　【○一七二】卯의十八

【●一七三】寅의十九　【○一七四】未의十八　【●一七五】午의十八　【○一七六】申의十七

【●一七七】午의十七　【○一七八】寅의十七　【●一七九】卯의十七　【○一八〇】丑의十七

【●一八一】辰의十八　【○一八二】乙의十七　【●一八三】丙의十三　【○一八四】己의 三

【●一八五】己의 二　【○一八六】己의 四　【●一八七】庚의 二　【○一八八】辰의十三

◎死 點　【○ 花點】巳의 七

◇業棋文氏評日 白이 未의十八 越點으로 黑耳角을 縮少하고 巳의三으로 黑二點을 捕獲하고 乙의十七로 黑을 應케하고 辰의十三으로 衝進하이 俱是先手인즉 上手의 手段을 이로써 推測하노라 黑白 局內가 別無關係하니 術術緊斷에 更進何方인고

라디오

十九日(木曜)

◇午後六時二五分(東)常識講座 警察은어떠케編成하나(一) 池中世

◇同七時三〇分 講演 學運動의發展 朝鮮科 李仁

◇同八時三〇分 철도獨奏 一、洪牙利狂想曲…포퍼作曲 二、夜想曲B短調…쇼팡作曲 三、트로메리아…쇼ー팡作曲 四、荒城の月…瀧廉太郎作曲 高勇吉 피아노伴奏 JB스루데니

◇同八時三〇分 速記對談 將軍의最後(二) 尹白南

◇同九時 歌詞 一、白鷗詞 二、길軍樂 申花仙 李月色 大琴 金永根

◇同八時五分 獨唱과合唱 丁南希 鼓手 池龍九 一、合唱 감감한것세마느로감…노물作曲 二、獨唱 復活(美理英) 三、合唱 가、갈보리…쉬떠드作曲 나、요셉의사랑스런東山에서…디큰존作曲 다、새벽이 되려할때…포스터作曲 四、獨唱 호산나(때므런)五、合唱 가、눈물며라…맥파린作曲 나、흰옷을입은무리들…디큰존作曲 合唱·京城西洋人聯合讚揚隊 獨唱·美理英 때므린 指揮·美理英 伴奏·부ー쓰

二十日(土曜)

◇午後〇時五分 流行歌(레코ー드音樂)

◇同六時 兒童劇 沈淸 天道敎京城 少年部 金二鍊

◇同六時三〇分 常識講座 警察은어떠케編成하나(二) 池中世

◇同七時三〇分 講演 催眠術의原則實際에對하야 黃術條

◇同八時 西道雜歌 一、沈淸曲 二、賞女歌 三、사슬방아 四、동개打鈴 五、山念佛 閔亨植 許英波

◇同八時三〇分 漫才 우롱과우슴傳覽會 成材梁

◇同八時五五分 唱劇調 一、短歌 玉樓紗窓 二、唱劇調 春香歌中 春香故鄕모고비는데 鼓手 丁元燮 朴綠珠

二十一日(日曜)

◇午後〇時二〇分(東) 野球試合實況 東京大學野球聯盟리ー그戰ー明治神宮外苑野球場으로부터中繼ー

◇同二時二五分 아式蹴球試合實況 東華蹴球隊對全京城軍ー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ー

◇同六時(東) 管絃樂(解說付) 組曲『아이차자』드볼쉬作曲 一、그라스、아드、파르낫(合先生 二、코끼의자장가 三、人形의세레나ー드 四、눈은춤추고잇다 五、작은牧者 六、접동이人形의춤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니콜라이수메르톨랑드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孝는事業의根本 洪淳鎬

◇同七時三〇分 時事解說 朝鮮日報主筆 徐椿

◇同八時 歌曲 一、界面[illegible] 二、弄 三、羽樂 四、界樂 五、編 文明仙 金鳳仙 洋琴 金相淳 大琴 金永根 杖鼓 金一字

◇同八時二五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楚漢歌 二、唱劇調 沈淸歌中 沈淸事是城을나가는

結核熱에

アビレキシン

結核性疾患、肋膜炎、氣管枝炎、流行性感冒、腸チフス等……………

國產 桂皮酸パラオキシフエニール尿素

化學的純品으로서 忌避할만한副作用업고 作用업고、作用緩和、徐徐히確實히解熱식히며、價格이極히低廉하다。

(說明書進呈)

東京 室町

三共株式會社

胃腸에 タカヂアスターゼ

다가지아스다제

消化를促進식히고食慾을增進하며 榮養을良好하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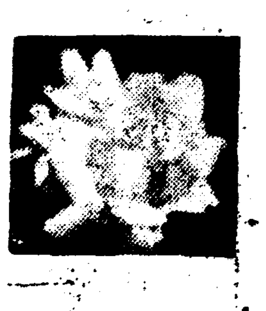
타가지아쓰다ー제는、類似가업는消化酵素이며ー般지아스다ー제와全然其撰定法이判異합니다

(1)澱粉、脂肪、蛋白質其他二十餘種의消化酵素를含有함。(2)効力一定、永久不變 (3)胃腸內抵抗力이强하고 이그消化力을發揮함。(4)茶、珈琲等의飮用에効力이如一하고 (5)食鹽、醬油等에는그消化力이오히려增强하게됩니다。(說明書進呈)

(粉末·錠劑各種)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三 SANKYO 共



史上에나타난 藝術家의群像

◎……湖岩

朴燕岩과 四家詩風

朴 燕岩(趾源)은 古今에冠絶한 大文豪이다。그奇偉하고도 精妙하게된文章은 藝苑의 神品으로 길이 朝鮮人의 자랑이되려니와 詩는 專門이 아닌으로 分量이 만치못하나 愛誦할만한 佳句가잇다 弼雲臺看杏花詩에갈오되 斜陽僧欲歸、上明下幽靜、花下千萬人、衣鬚各自別 五言絶句뿐이 아니라 七言律中에 豪健한것으로 露宿九連城詩가 잇스니 臥念遼陽萬里中、今古山河幾英雄 樹連李勣會開府、雲壓東明閣佳氣、戰伐飛騰流水盡、漁樵問答夕陽空、歌歎出塞歌盪笑、兩白靑生且梅風、

그러나 朴燕岩은

文 豪는 文豪로되 詩人은 아니다 詩人으로 말하면 燕岩보담도 四家를 꼽으야 하겟다 四家란 李雅亭(德懋)、柳惠風(得恭)、朴楚亭(齊家)、李薑山(書九)을 니름이다 그들은 燕岩에게 從遊하야 學에잇서서는 實事求是를 힘쓰는 同時에 詩에잇서서는 前轍를 밟지아니하고 獨特한表現法을 써섯다 四家中에 博雅와年長으로 第一되는 李雅亭의詩에 夏尾秋頭接、新晴綠暇日 의句가 잇는바 이夏尾秋頭는生新한말이요 또全體로서 볼때 오늘날까지 보지못하든 獨特한表現法이다 새詩法과 새句格을가저서

詩 界를改革하려고 試한것이 곳이四家들의詩風이엿섯다 그의漢江舟中詩에 갈오되 日脚玲瓏水步舒、[illegible]、針尾芒[illegible]二寸魚、 이日脚水步는 上述한 夏尾秋頭의 語法과 거의 異巧同調이다 例로 듬게된 이들의 幾句의詩가반드시 佳作은 아니로되 어쨋든지 淸新味는 잇는것이다 그러나 그의七言律로 代表作이 될만한 牙山白岩詞 詩한首를 적노니 그詩는아래와 갓다 題忠祠迴白岩側、樹影濛濛靜晝眠 溪夜祠明三五宿、虛郊水白上中山、[illegible]、梨花院[illegible]照縹妍、

이詩에 對하야淸朝乾隆間의 有名한文人

潘 庭筠은 評하되 孫意出奇라고 하엿고李調元은이를評하되 月凝人聲以相諧의句와 마찬가지로 陰晴하다고 하엿다 그러나李調元은詩律에잇서서는 朴楚亭의七言律을 잘한다고推稱하엿다。

朴楚亭(齊家)은 北學議의著者로 또는金秋史의 先生으로 有名한분이지만 그의七言律中에서도 法華菴詩를 李調元은 가장 淸雅脫俗하다고 讚하든바다 그詩로 말하면 浮圖縹緲梵王宮、騎馬丁當稜翠中 [illegible]千局散花雨、茶聲一沸悟松風、歸鳥入[illegible]時看翠、落日澄空擔影紅、踞石不知雲繞膝、楓陰深處靜[illegible]、

柳惠風(得恭)은 四家中에 특이 懷古詩로 有名하니 저二十一都懷古라는것의 그代表作으로 볼수 잇다

凄 迷哀艶하야 千秋絶調라고 李調元으로하여금 [illegible]하든 松京懷古詩의一部로 燕京二十八王陵、風雨年年[illegible]柴[illegible]、[illegible]山中紅[illegible]、春來紫白[illegible]、 가든것은 가장人口에 膾炙하는바이다。

李薑山(書九)은 四家中에 가장 年少한분이나 地閥로는 가장貴하야 그後人相이 되엇다 그는 五言古詩가 용타고하나 七言律도 용치안흔것이 아니니 一例로 [illegible]詩를 들면 危亭[illegible]約[illegible]、[illegible]紛、河水[illegible]帆[illegible]岸去、[illegible]江分、荷山[illegible]、華魂消上[illegible]君、[illegible] 이詩는 潘庭筠으로 하여금

格 調가 淸初大詩人王漁洋과 갓다고推稱케 하든바다 이 밧게警句로 有名한 [illegible] 石田春雨[illegible]人 가든것은 春帖에 흔이써부치는 것이다

學藝

안드레·지-드의 思想과作品研究 【1】

李 源 朝

昨年夏間에 나는『안드레·지-드研究노-트序文』이란 小論을本欄에쓴일이 잇섯다。그것은 그題目이提示하는바와가티 主로 지-드의

思想 的轉向에 對한 내意見을 말한것으로서 차라리 지-드論의 一部分이나 또는 拔萃에지나지못하엿슴으로 그때에도 다시 作品을 研究할것을 約束하엿스나 지-드가 스사로 몬-테-뉴論을쓰니만치 偉大한『모랄리스트』란 말을 듯는 所以然도 正히 여기잇겟지마는 지-드와갓치 그生活과、思想과、文學이 三位一體로 그一生의 變遷과 發展의段階를明示하는 作家는 드물것이다。

그럼으로 어느意味에잇서서 지-드研究가 方法上으로는 다른作家에比해서 單純할는지는모르나 실로 우리가 作家를研究한다는것은 그作家를 觀念上으로 再構成하는것이다。그럼으로 이러한 再構成의

方法 으로는 먼저 지-드의 全作品가운데서 멧개의 그代表的인部類를갈너서 다시 그全體的인面貌를 彷彿하게해야겟지마는 이러한全作品系列가운데서 멧개의代表的인部類를 갈느는標準은 또한 지-드의 가장 根本的인 思想傾向을 먼저 想定하지안흐면안될것이다。그럼으로 여기서 지-드의 가장 根本的인 思想傾向을 무는한말로서 斷定을하자면 먼저 그思想의胎盤될자은 모든環境과 時代的條件──例하면、지-드의 生成過程과、敎養과、또는 그時代의文化的雰圍氣같은것──을 紹介하여야만 하겟지만 本論의性質上으로보아 그러한煩雜은 한개의獸的事實로부치고 오히려 性急한結論이나마 나의 이적은

研究 와必要에 應하자면 지-드와 가장根本的인思想은 人間의問題 나아가 人間의 進步인것이다。그러나 이러한 一般的인 人間의問題가지-드의게잇서서는 個人의問題로還元되엿다는것은 佛文學史에잇서서 前世紀의遺産으로서의 一般的인問題가 階級的으로는 小뿌르조아지-이고 敎養的으로는프로테스탄트인 지-드에게잇서서는그다지偶然한事實이안일것이다 그럼으로지-드는 지금에잇서서도『나는個人主義者이다』라고 言明하는바와가티 그녀낫에잇서서도 또한 個人主義者이엿다。그러나 지-드가 近年에와서自己가 個人主義者라는것을말할때나 또는 自己가생각하는 個人主義라는것을말할때는 항상 個人主義라는말미테括弧를 치고『正當하게理解된』(Bien Compris)이라는

註釋 을붓치며 또한 이러한個人主義는 콤뮤니슴과 對立되지 안는것이라고 하는것을보면 지-드가 그 出發에 잇서서도 個人主義者이엿고 그轉向에잇서서도 個人主義者라는것은 벌서 그個人主義란 말이 名目으로서의 問題가아니고 그內容으로서 質的變換이잇섯나는것이다。

그러면 지-드의 이러한個人主義가 그內容으로서 質的變換을 하는데에 어더한段階를 어더케밟어왓는가? 이것이 正히 나의 이小論에잇서서의着眼點으로서 그內容을大別하면 첫재 神에對한人間의問題、個人으로서人間의問題、社會에對한個人의問題라는 세段階로논할수가잇는것이다。그러나 지-드가 이세段階를거러오는데에는 果然 그

嘲笑 에뛰치는 모리아-크의말과갓치 半世紀나걸닌것이니 이半世紀동안에 지-드의 精神的苦鬪는진실로피가흐를만치凄慘한것이엿다。때로는 不安의속에 失神한사람과도 갓햇고 때로는 文學을斷念하고멀니 아프리카로永住의地를求해서 다라난적도잇섯다。

이러한 問題의途著과 解決에 그다지도 悲壯苦鬪를해서 마지안엇다는것은 단순히 지-드의 眞理에對한 不撓不屈하고 非妥協的인 眞摯한態度에서나온것이니 그점은 봐-ㄹ레리의입에서부터『아모의심업시네려온재(坂)를 다시올는다는것은 오! 얼마나 어려운일이냐』한것과가티한問題의極端을向해 躁進하다가도 다시 그內面的矛盾의 다른

極端 으로向하는 그眞理探求의態度가그러한 誠實과 精神을 가적스면서도 오늘날의 心境에이르기까지 半世紀나 걸녓스나 또한그만큼 眞摯하고 그만큼 誠實한 때문에 그가한번 轉向을宣言함에 世界的으로 同情과 讚頌과 嘲侮은 더큰것이니 그는 日記抄가운데 多少의矜持를가진 語調로서『自己가 發見하고 다시再發見한것이 살어잇는眞理인것이고 傳統은 다만 眞理의骸殼만을 부허주는것이다』라고 까지말한것이다。

〜情〜炎〜의〜春〜霄〜舞〜姬〜

讀書問議

女眞에對하야

【問】女眞에對하것을 좀알고자합니다。그族屬 그版圖 또는그歷史等을 아리켜주시기 바랍니다 (堤川 沈相運)

【答】女眞은 松花江을中心으로 그附近에 퍼저잇든 通古斯族中의一系입니다。松花江西便에 잇서서 遼國에服從하든것을 熟女眞이라고하고 松花江東便에잇서서 遼國의外患을 이루든것을生女眞이라고합니다。遼의末葉 生女眞部長인 完顔阿骨打가 崛起하야 遼를征服하는同時 北宋을滅하고 金國을세웟습니다。그後金은蒙古에게 亡하얏섯스나 그들은 다시故土를찻고 또明을처빼아서서 淸國을이리키엿습니다 或은말하기를 女眞이나 朝鮮은 다가튼 肅愼氏의後裔니 女眞이나朝鮮이나 모도 다肅愼이란말의 轉訛라고합니다。이분의말로 본다면 女眞과朝鮮은 不過四寸格의近親이로되 아즉도좀더考究해볼餘地가 잇스리라고생각합니다。

朝鮮古事研究

第二 檀君朝鮮時代篇 【3】

張 道 斌

마、辰韓도또한王儉의一支派로서建設된故로그京都인 慶州가當時에金城이라稱하얏나니 金城은 곳「검잣」이오 同時에 新羅王室金氏의始祖 閼智가始林의 金櫃에서出現된 故로

姓 을金氏 라하얏다고 云云한 傳說은實은閼智(아기)가 始林의王儉祠에서 出現된故로 그를 儉의子孫으로하야 姓을金으로한것이다

바、濊는 무론王儉의一支派로서建設된나라로冬月에祭天하는것과 山川을崇奉하는것이 扶餘의 俗과類似하얏는데 特히金剛山은 古來로 金剛이라稱한바 金剛(金儉)은 곳 儉난으로 儉이 誕生한山이라는것과 同一함으로 보아그山에

王儉祠 가 잇던것으로推認된다 通川의古號가 金壤인것을 보아더욱그것이 證明된다

사、沃沮는 또한 王儉의一支派로서 建設된나라로 그法俗이 扶餘와類似하얏는데 特히白頭山은 古來로 太伯山으로 稱하얏슨즉 무론 그山의附近에 檀君祠가잇섯슬것이다

列國時代以前곳 檀君朝鮮時代에는古來의制度로桓因天王、桓雄天王、檀君王儉을祭祀한것으로 推認되는데

그祠壇의 所在地는 太伯山곳妙香山의 檀君窟과 白岳(今黃海곳儉山)곳九月山의 天王堂과 平化郡太伯山의 天王堂이 그遺蹟한것이라본한다

以上가티 古來로檀君祠가잇서 檀君을崇奉하얏는데 特히北朝鮮에서는 王儉곳 으로 稱하얏다 新羅의尼師今은곳王儉의轉稱인데 그것이 後世에님금으로 轉稱된것을보아 그도王儉곳儉을

新羅人이 今으로 稱한結果 ─마춤내後世의님금으로 된것을 認하게된다

以上을圖解하면左와갓다

檀君朝鮮時代──太伯山(白岳)의天王堂

列國時代──王儉祠

三國時代 高句麗──檀君祠 百濟──王儉祠 新羅──天王堂

高麗時代──平壤君祠

朝鮮時代──檀君祠

三、王儉子孫의歷代王姓

檀君의祖 가 桓因이오 檀君의父가桓雄인것을보아 檀君의 名이 桓으로[illegible] 그러면 무론昨이 檀君以後의 朝鮮歷代王儉은 한울의 意味로推認된다

扶餘王이 檀君의子孫인것은北扶餘王解慕漱의 別號가檀君인것을보아 더욱明白하다 그런데扶餘王의 姓이解인것은 何故인가 그는扶餘王은 天의子孫으로하는同時에 日곳太陽을 天의子로象徵하야 王의姓을解로한것이다解는곳해(太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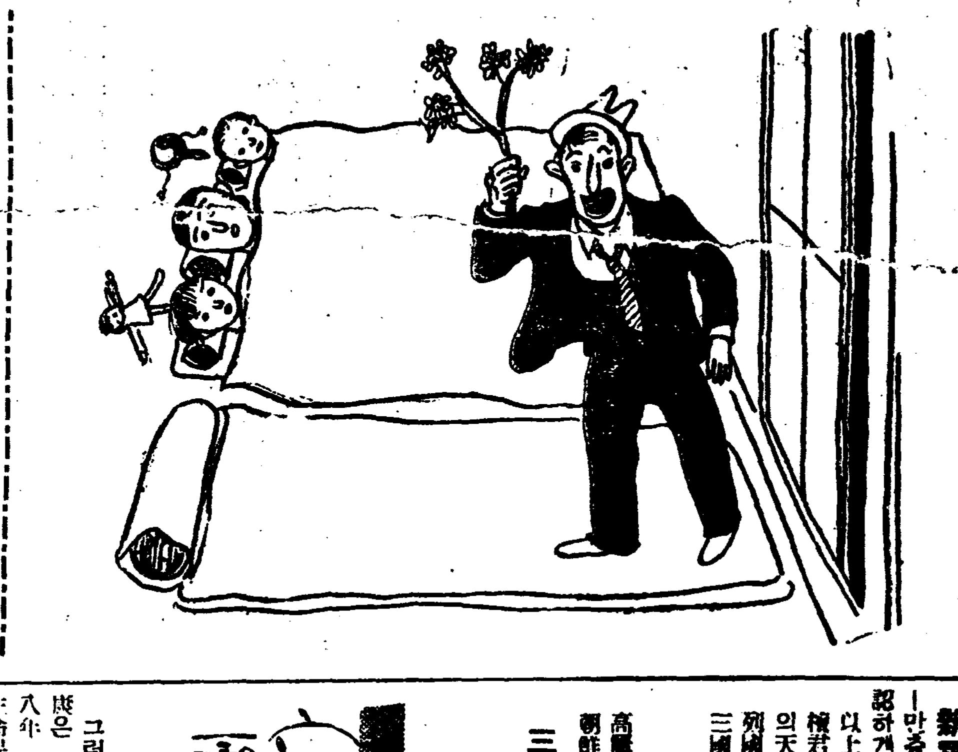
馬韓王의姓은金으로 推認되니그는金씨國、金馬渚、

金馬山이 證明한다 金은 곳儉이니 곳王儉의子孫인故로그姓을儉 곳金으로한것이다 馬韓王의子孫이後에 韓氏로되얏다고 歷史에記錄되얏스나 그는馬韓이亡한後에 그王의子孫이馬韓의國號를紀念하야 姓을韓으로하얏고 本姓은金일것이다 그는卞韓王、辰韓王의姓이 金인것을보아더욱 證明되는다

◎春日小景◎

夕影

◎…남편만 아는 봄 홍취…☆



발갓게 남편이 술이취하야 꼿한가지를 들고드러와다

안해「어저면 저러케 혼자 흥이낫서、나는 봄이와도 집안 구석을 떠나지못하는데」

남편「헝、그러니까 이걸 꺽거왓지! 자! 보란말야 꼿이 좀-조흔가。」

아기「압바 지금꿈에 압바하고 창경원 꼿구경갓서 젓먹어아기[illegible]─」

午前의詩論

〓第一篇〓基礎論 (一)

金 起 林

序言

한개의 생각은 그것을 肯定하므로서 利를볼수가 잇다。또한 否定하므로써 利를볼수도잇다。여기에 純粹히 詩를사랑하는이 또는 알려고하는이들에게 이야기하려는 나의意見은 感은否定일는지도모른다。

또한 나는 나의말이 遲刻이라든지 停頓이라든지 意識에대하야는 너무나 前衛하다는 非難을 바들것을 豫想한다。

그러나 事實나는『十九世紀』를讚誦할수잇는 아모러한말도 알지못한다

나 는반드시 나의意見이肯定되는것만 바라는것은 안이다 萬若에나의말을否定하므로써 諸君이 한거름더나아갈수가잇다면 그것은 이論文의 別個의成功일것이다。

◇

봄을 맞을때마다 痛切히 느끼는 것은 오늘에사는 作家나 詩人처름 不幸한사람들이업다는것이다。

思想과 論議와 意見이거진 先人들에 의하야 말해젓다。그들은우리가 말할수 잇는것을 別로히 남겨두지안코 그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못일을吝嗇함이 업시 吐露해버렷다。남어잇는可能한 最大의일은 先人이말한內容을 다만다른

方 法으로 說明하는 程度라는것을 더군다나 自身의 作品에서 發見하는때 우리들의 自尊心은 餘地업시 슬어진다。

남은일을 남은方法으로 언제까지든지 써가면서도 아모러치도안케 생각하고잇는 作家나詩人을 내가幸福스럽다고 말하는것은 그까닭이다。

◇

그러컨만은 詩는 언제든지 停止할줄 모르는 움즉이는 精神속에 살어야한다는것은 얼마나 무서운일이냐?

敎養이라는것은 어우에업시 貴重한것이지만 그것이 進步에奉仕하지못하고 오히려 停頓을合理化하는데만쓰여질때 詩는 차라리 그러한 怠慢한敎養에대하야는 反抗을宣言하고 野蠻의地位로잠시 돌아간때도잇섯다。

◇

여기에 또한가지 障害가잇다 그것은

公 衆은 언제든지 새로운 「에스프리」를 무서워한다는일이다。

이일은 政治的公衆이나 文學的公衆이나 그러케틀림이업다。公衆은 새로운「에스프리」에아주 익어버리기까지는 그들의압헤그들과는 너무나懸隔되賢明이 提示되엿슬때 그것에각가히가기를躊躇한다。

公衆은 언제든지 그들이 가지는文學속에 若干의 興行物이석겨잇기를 바란다。

그러데 詩는 그時代의「에스프리」일뿐안이라 더욱히그時代의모-든 文學의「에스프리」기도하다。

여기에 現代가가지고잇는 몃가지의 特徵的인時間的인 困難과 또한 地理的困難을 아울러헤일수가잇다。

이 러한 障害物競走場에잇는것이 바로 오늘의詩人이通過할수밧게업는瞬間이다。

◇

여기에 지금까지의 나의詩에 대한思索의 決算을 지여서 써 이 困難한瞬間을 함께經驗하면서잇는 詩徒에게 보내는말을 사므려한다。

허나 이것으로써 나의思索이停止한다는것은 아니다。다만 너무나 支離한길에 한標木을 세우므로써 自身의 思考를 整理하려고 할뿐이다

全編을 基礎論과 技術論의 두篇으로 난호고 基礎論에 잇서서는 主로 詩의精神에 關한方面을 이야기하고 技術論에잇서서는 우리들 詩徒를위하야 가장 緊要하다고생각되는 若干의 [illegible]을 考究해보려고한다。

現代詩의周圍

自由文壇

文壇苦行記【7】

鄭 日 秀

그러저럭 하는동안에 나의健康은 完全히 恢復되엿다。昭和八年 봄에는 大邱로뛰여가 某生命保險에 從事하는동하야 몃개의 作品도 맨들지 못하엿다

昭和九年에는 親戚과 合同하야 司法代書業을 하면서 百枚와 三十枚가량의 小說을 한개씩 썻섯다。

그러고 前年以來로 病을 因緣하야『療養生活』의主幹 田邊一雄氏에게 알리워서 該誌와 그姊妹誌인『新生活』이란 特殊誌에 거의달마다 나의病歷 其他隨筆을 실리고 얼마씩의 謝禮를바더왓다。그것이 病後의 가난한 나의生活에 적지안은 도움이된것은 勿論이다。

司法代書業에서도 滋味를 보지못하고 나는 지난歲末로、그만두엇다。設或滋味를 본다 할지라도 나의 性格과 趣味와는 엄청나게 틀린事業이니만치 오래 繼續치는 못하엿슬것이다。

幾百圓의 收入이 잇다면 나는 家計보다도 당방에 小說集이나 詩集을 出版하려고 生覺하엿섯다 그러나 그것도 꿈이엇다。

꿈이엇슬망정 代書業으로 因하야 나의常識은 얼마쯤느럿다。나는 轉轉하야 職業巡禮를하고 새로운 世界를엿보는것이 滋味스럽다。經驗文學이라말이 잇거니와 나의 創作은 하나도 純全한空想으로만 되것이업다。事件은 모다내가 直接體驗한것이나 나와關係잇는것으로 얻엇고 人物은나의親戚或은家人이나 知人을그려서 되것이다。農村、가난、疾病、人生의暗黑面──이것이主로나의 取材하는 바이다

新刊紹介

▲靑年太陽 五月號 東京市芝區芝公園十二號[illegible]四 日本靑年文化協會 振替東京六三三六八番 定價二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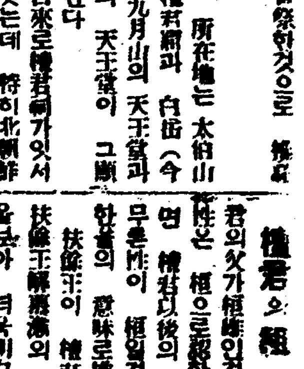
▲農民時報 第三十八號 京城府陽雲洞八八 農民週報社發行 振替京城四三六一番 定價 一部四錢

▲예수 四月號 平壤府下水口里九〇 예수敎會中央宣道院發行 振替京城一一三六五番 定價十二錢

▲朝鮮實業俱樂部 四月號 京城府齋洞町一一八 朝鮮實業俱樂部發行 振替京城八五四〇番 定價三十錢

▲月刊野談 第七號(主要目次) 晴雲의松京、李白의一生、柳子光의微笑等其他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八 癸酉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二一八二一番 定價二十錢

黑風 【11】



韓 龍 雲 作
金 熊 超 畫

지주와소작인 (11)

순보는 먹다남은 만두조각을 조금어더먹고 그러케누추한 행낭방에 안저서도 별로 괴로움을 늣기지아니하얏다。그것은 자긔가 평소에 거처하는 자긔집방이 그방보다 나은것이업고 또는 평소에먹는것이 남의먹다남은것은 아닐지라도 풍질로는 그보다 나을것이 업는까닭이엇다 그러나 처음에 은석의 거처하는 사랑의 지나치게 화려한것을 보다가 그행낭방의 너무누추한것을보고 놀나지 아니할수가 업섯다 물론 주인의 거처하는 사랑과 하인의 거처하는 행낭방이 가틀수는 업다 할지라도 가튼 부자집의 방으로서 사람이 거처할수 업슬만치 거칠고 드러운데 대하야는 아모리 무식하고 순진하야서 사리에 어두운 순보로도 그주인의 인색하고 차별적인것을 치밧지 아니할수가 업섯다

그러나 그러한일은 순보에게 진정한걱정이 아니엇다 순보는 소리업는 혼자말로

『내일을 엇지하나 아까 그이의 말하는것을 드르니 논을 도로줄 생각은 조곰도 업는 것갓튼대 더군다나 내가말을 잘못하야서 그이가 노여한모양이다 아모말도 하지말고 더퍼노코 빌기나할것을 부지럽시 말을하야서 그이를 노엽게하얏다 수득아버지처럼 말을잘할줄 아랏더면 논을도로 어덧것지 수득아버지말에 말잘하는것은 쓸대업고 무엇이든지 갓다주는것이 제일이라고 하더니 그러치도 안한모양이다 논을 못어더가지고 그대로가면 마누라와 자식들을 무슨낫으로 대면하며 무엇을먹고 사라간단말인가 내일아침이라도 다시드러가서 애긍하게 비러보앗스면 조켓지마는 다시드러 오라고할리가 업슬것또한대이일을 엇지하면 조흘까』

이것은 말이라고 하나나보다 생긔이엇다 쓸쓸하게 누어잇는 순보는 마음으로는 이러한생각을하고 몸은 빈대에게 물녀서 잠을이루지 못하얏다 순보는자기의일에 대하야 조흔방침을 생각하야보앗스나 생각이 물지아니하야서 마음만 괴로웟다 연구하는 생각이 피로하야지는 때에는 긔억력(記憶力)이 나는것이엇다 그리하야 순보는 홀연이 아까올때에 향주성안에서 보고듯든 모든광경이 력력히 눈압헤 나타낫다가 다시사라진다 그것은 완연히 전생의꿈과가치 나타나고 사라지는것이 흔적이업섯다 어대서치는지 알수업는 종소리는 열한시를 보하얏다

마친 이때엇다 누구인지 행낭방문을 가만히열고 드려다보는사람이 잇섯다 순보는그짓감엇든눈을 반짐뜨고 그사람을 보앗스나 석유등불이 희미하야서 잘뵈이지 아니함으로 몸을반짐이르키고 몸을느리어서 자세히보니틀림업는 은석이엇다 그러나 은석이가 그방중에 몸소행낭방에와서 자기를 차저보리라고는 꿈도꿀수 업는일이므로 순보의눈에 뵈이는것이 확실히틀림업는 은석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순보의마음으로는 그것이 은석이라고 인정할수가 업섯든것이다

『이때까지 자지안나』

하는 그사람은 순보를향하야 무럿다 순보는 자긔의 눈으로 보아서 은석이줄을 알게 된 이상에는 의레히 누구냐고 무를것이업시 대답할것이지마는 감히 그사람을 은석이라고 단정할수가 업서서 갑작이 어려나면서

『누구십니까?』

하고무럿다

『이사람아 나일세 아까보고서도 모르나 아마 자다깻나베 그려』

하는 그사람은 벙긋이 우스면서 몸을굽혀서 머리를 조곰드리민다 순보가 그제야 은석이를 확실히알고 깜짝놀나면서

『아 나리님이십니까 이게 웬일이십니까 황송합니다』

하고 몸을 오십도이상으로구부린다

『드르니까 저녁도 변변히 먹지 못하얏다네그려 내집에는 손님들이 만하야서 끼니가지나서도 손님들이오니까 찬밥이 남어날수가 업네그려 어지생각하지말게』

하는 은석은 정다운듯이 말하얏다

ランランポマード
란란포마-도

四月十五日부터特別興行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半 午後二時二十分 七時半
◆코럼비아社超特作日本版 푸랭크·보세기監督作品
어린勇士
죠-지·부레스트、원조、少年 主演
少年團映畫絶讚의코저못옴을비치는可憐한熱心아! 朝鮮의어린이를爲하야지못하야한 超映畫를바치다!
◆코럼비아超特作日本版 푸랭크·캐푸라監督作品
하로만淑女
母의幸福을爲하야 하로만淑女가되는 感激한어머니의기막히는 [illegible] 一九三三年度米國十大傑作의하나로 推賞된名作
◆P·C·L超特作全發聲
エノケンの魔術師
次週封切 [illegible]의노래、[illegible]、世界의마지막、사랑의一夜、어느날생긴일、個人의사랑、未完成交響樂、最後의戀愛長者、羅馬太平記、[illegible]의槍騎兵
全朝鮮第一映畫殿堂 團成社 電光 [illegible]

四月十五日부터名篇封切週間! 日曜祭日은晝夜三回興行
코럼비아會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빠로-스氏監督作品!
戰時特派員
잭크·홀드氏 랄프·그레이부스氏 主演 리라·리-孃
砲煙彈雨! 戰場에피는二人의꼿!! 戰亂의慘虐中에도사랑의爭鬪와嫉妬! 好漢二人의對決以來最高期待의大作
유니버살社特作西部大活劇 웰니암우이라-氏監督
名馬와名騎手
快漢레스배루-스氏 主演 루이스로레인孃 助演
大都映畫社特作時代劇 鵰見正義氏 監督
怪盜流轉
海江田譲二氏 佐久間妙子孃 久野あかね 主演
今週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
黃金町 優美館 電光 九六三

四月十八日부터最終週間!! 劇團兒弟座支部完一黨最終公演
連日連夜滿員謝禮로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春史作 劇 嗚呼二八 全二幕八場
◇春史作 史劇 開化黨事變錄 全一幕三場
◇幕間 獨唱과스벤드寸劇딴센스 二重唱
◇玄聖完作 喜劇 일전짜리손님 全一幕
次週二十日부터 玄聖完 力演 소라의술집(居酒店)
豫告‖突進大飛行艇、突擊怪走艇、바다여말하라、前科者、大將傳
桃花劇場 電龍 三三

當る十八日特別封切 陽春第二週御禮特別サ-ビス週間!!
東西二大名畫同時大公開 階上 大人四十錢 學生三十錢 小人二十錢 階下一
新興キネマ時代劇部超特作 新興本年度新春第二週提供
原作 加戶野退兒 監督 石田民三
お江戶春化粧
大谷日出夫 鈴木澄子 小金井勝 毛利峰子 主演 月形龍之介特別出演 尾明枝助演 小宮一晃、國德勝、東良之助、松花の雲鶴は上野か淺草か朗らかな お江戶全盛期の名物男、遠山の金さんがこれは又役付となつて、江戶、城出仕、打つて變つた衣紋姿に…新年の初登城姿!!
フォックス超督級日本版 原作 ポール·グリーン氏 名著『コネリ-一家』ヨリ 監督 ヘンリ-·キング氏
心の綠野
ジャネット·ゲイナー、ライオネル·バリモア主演 トーキー
この映畫はゲイナーがバリモアの協力を得て眞に第七天國以來の卓越する姿を示した問題の映畫!!
次週特別大公開 嵐寬壽郎第一回オール·トーキー 右門、捕物帖七化け大名
吉屋信子先生原作 福壽草
水標町 電本二六 中央館

眞正한高級眼科藥

쓰리지안코、압흐지안함

로-도안약

井上獨逸博士處方
中尾藥學博士指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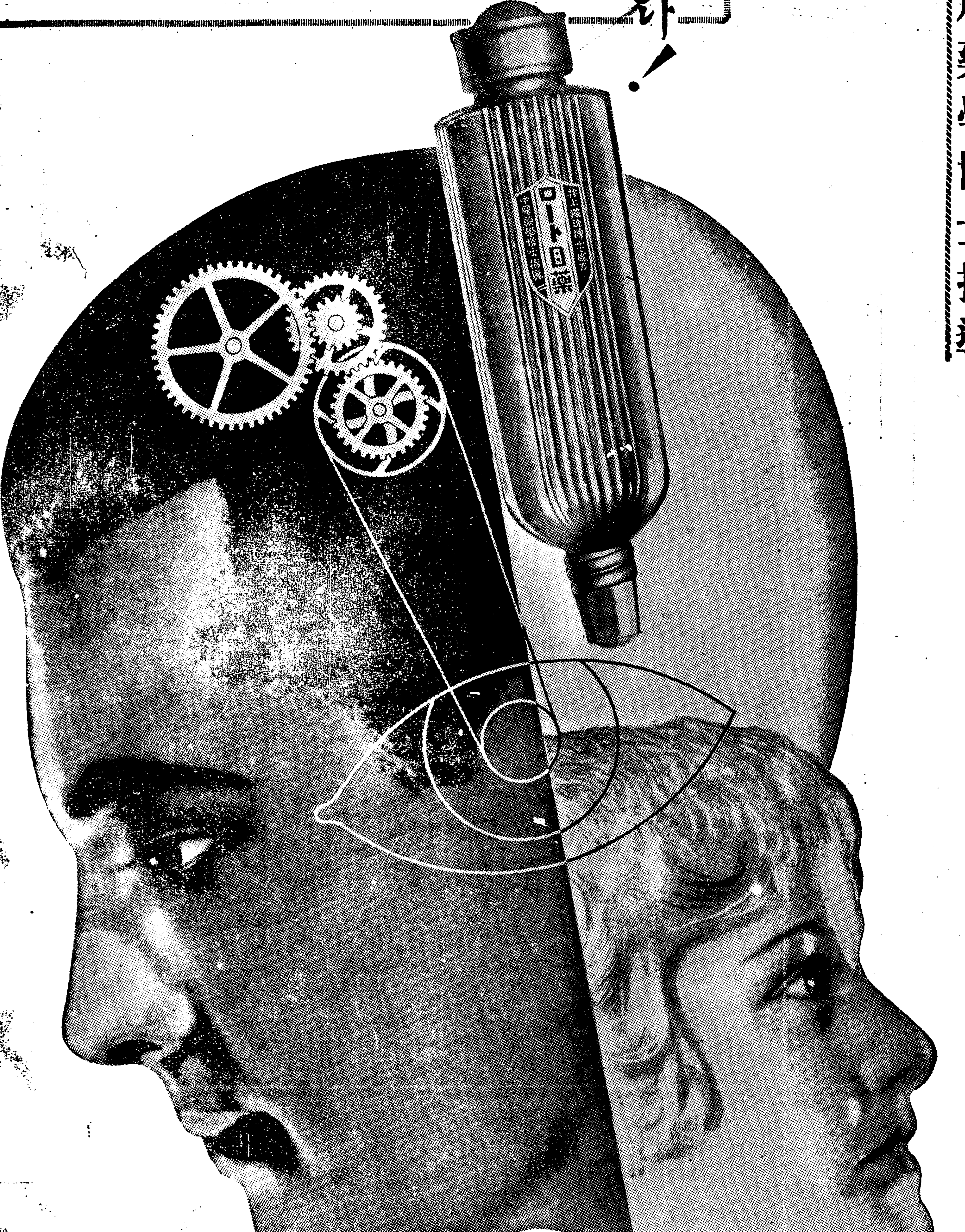
ROHTO

眼은腦를支配한다!

度數가맛지안는眼鏡을쓴다거나、或은長時間過度하게視力을쓸때、頭痛과、倦怠를느끼는것은누구나늘經驗하는바이다。이것은即눈이直接腦의作用에關係하고腦를支配하는것임을分明히證明하는바이다。

이러한狀態로되는것을醫學上으로는眼精疲勞라고하야、近代人、特히細文字를읽고쓰고하는學生과事務家、或은長時間裁縫에從事하거나、職業的으로微細한物體를보는사람들에게흔히잇는近代的疾患의하나이다。

眼精疲勞가된境遇에는、처음에는눈이疲勞하기쉽고、物體가朦朧하게보이고頭痛이나고頭重이되는程度이지마는、이것이더지나면睡眠이不好하고判斷力과記憶力의減退를보게된다。이러한症狀을自覺한境遇에는決코放任하지말고、그原因이될일을避하는同時에、로-도안약과 가튼健眼에效果잇는、適當한眼科藥을每日數回點眼하야눈에休養을주고눈을愛護하는것이緊要하다。



結膜炎

結膜炎이라하는것은結膜、即眼瞼의속과眼球를덥고잇는結膜에일어나는炎症으로世俗에돌림눈、눈꼽끼는눈、부은눈、붉은눈이라는것이이것이다。原因은k·w氏菌等의黴菌、塵埃、强烈한光線等이며、그症狀은輕할때에는結膜의充血眼脂의分泌、眼瞼의腫脹等이지마는그것이重해지면、充血과腫脹이甚하고或쑥쑥쑤시며、또밝은光線에對하여서는눈이부서서눈을뜰수가업게된다。이結膜炎의療法으로는每朝洗面할때에淸水로눈을 씻어眼脂等의不潔한것을씻처낸뒤에로-도안약을一日、二三回點眼하는것이 有效하다。로-도안약은그殺菌作用으로病原菌을殺滅하고、消炎作用으로炎 症을消散하며、收斂作用、鎭痛作用으로 充血과腫脹을낫게하고痛症을그치게하는 機能이綜合的으로 有效한作用을하는것이다。

角膜炎

角膜炎은世俗에삼눈、찔린눈、흐린눈、진물른눈이라하는것들인데、眼球의검은자위에생기는眼疾이다。原因은草葉이나무긋에찔린境遇、或은結膜이進行續發하는境遇가만코검은자위가흐려지고한상이서눈이침침하고、或은눈물이나서눈갓이진물르는수가잇다。療法은大體結膜炎의項에서 말한것과가티하면고만이나、로-도안약의優秀한消炎作用은 角膜의炎症에對하야極히有效하게作用하야 그收斂作用으로더부러눈흐린것을업새고진물른것을고치며、炎症이減退됨을따라눈물은적어지고 鎭痛作用으로疼痛이抑壓되는것이다。

適應症

結膜炎、角膜炎、도라홈 學校眼炎、眼瞼緣炎、疲勞眼 結膜充血、角膜翳、麥粒腫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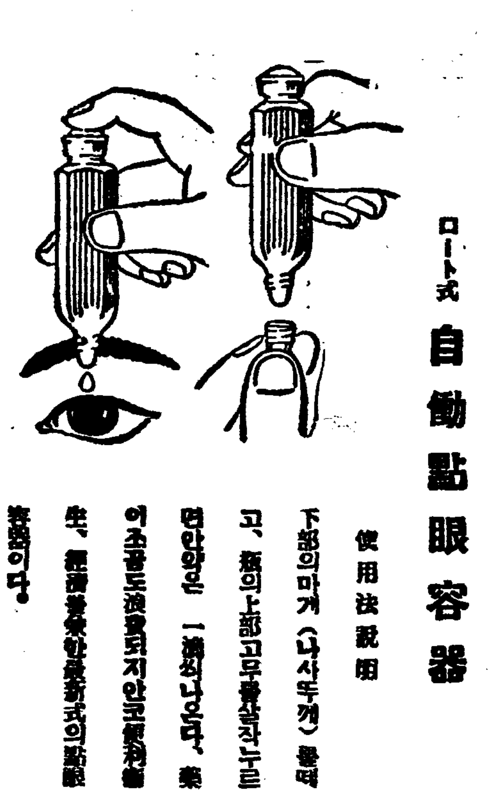
俗稱 上氣된눈、돌림눈、진물르는눈、눈곱낀눈、붉은눈、흐린눈、삼눈、서린눈、어둔눈、雪盲、찔린눈、부은눈、뻑뻑한눈

어린애의眼疾에對하야

二、三歲以上七、八歲때까지의幼兒들에게서흔히보는것이어니와、아침에일어날적에눈[illegible]으는눈이딱달들어붓터서、甚한것은눈을뜨지못하는수도잇고、또갑작이눈의흰자위가淡紅色으로充血하는境遇도잇다。이것은흔히는急性結膜炎이되는것이다。애기네들의點眼에는 小兒專用으로特히處方調製한「小兒用로-도안약」이잇서서쓰리지안코아푸지안코安心하고使用할수잇습니다。

新案特許

ロート式 自動點眼容器



使用法說明

下部의마개(나사뚜껑)를떼고、瓶의上部고무를살작누르면안약은一滴식나오며、藥이조곰도浪費되지안코便利하며衛生上으로完全한最新式의點眼容器이다。

生産合理化
藥價低廉

小瓶	二十錢
大瓶	三十錢
徳用	五十錢
小兒用	二十錢

◉全國藥店에서販賣함

本舖 山田安民藥房
營業所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
工場 大阪市東成區猪飼野町

米穀統制의實情
荷見氏談에對한異議
申泰翊

오늘아츰에 農林省의 荷見米穀局長이 入京하엿다 一官吏가 오고 가는것이 그러지 注目을 끄으는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 荷見局長의入京用務는 朝鮮米穀界의實情을 살피라는것이며 또는 이것도 米穀界의 米穀界對策이라고 하면 그를만 때들어오는 米穀統制의 對策 即 米穀自治管理法案이 무슨重大事로 뵈것이겟만 그만큼 曲折을 거듭하여가지고 겨우 지난 議會에 上程되엿다가 結局에는 審議未了란 形式으로 流産되고만 이때에 다시 米穀政策의 樹立을 하기爲하야 朝鮮米의 實情을 觀察하라는 것이라고 하는點과 그는 米穀問題에 關한 當局者인 만큼 이에 精通할바 아니라 더구나 米穀自治管理案이 거의그全部가 그의 손으로 된것임으로 이번 그의入京에對하야 關心을 두게되는것이 이點이잇다

×

그래서 오늘아츰에 記者는 그를 總督府 農林局長室에서 만나 그의現米穀問題에 關한意見을 들엇다 이것은 別報와 갓거니와 그中에잇서 記者로 理解키 어려운 몃가지의點을 들어서 그의再考를 促코자한다 即

◀첫재로 그는 朝鮮米差別待遇에對한論議는 五六年前에 잇섯든것으로 오늘에잇서는 公平한立場에서 米穀統制가 樹立되여가는만큼 그 差別待遇의 말이 사러젓다고 말한다 이것은 當局者 더구나 農林省官僚로서 이러케 말함직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朝鮮米의 立場에서 이런말을 할때에는 若干의 差異가 업지 안흘수가 업다 그것은 웨그러냐하면 오늘까지 朝鮮米가 移出될에잇서 日本內地로부터 그制限에關한 論議가 업지 안흘수가 잇섯스며 또는 朝鮮米로서 從前의差別待遇를 當케되는危機에 몃번이나 逢着되엿든것이가 더구나 最近 米穀自治管理案을 가지고 보드래도 朝鮮米로하야금 不利한地位에 잇게하엿든것을 보라만은 귀바으로 돌말바가 못된다고 생각한다 그實例의하나를들면 即過剩米의自治管理案의 比率에잇서 朝鮮米가比較的 顯著한高率로 되는것은 差別待遇가 아니고 무엇인가

×

◀둘재로 그는 한거름을 더 나아가서 朝鮮米에對하야 優待하고 잇다 말한다 이처럼 農林省으로서 朝鮮米에 對하야 優待하야오다는것은무엇을가리커서 하는말인가 하면 日本內地와 朝鮮, 臺灣을 한테어리로하여가지고 平等的米價調節을 圖하라는데 잇는것을 든다 아니거니라 一時 朝鮮米移入制限 或은 그移入制限 또는 命令事項等으로 從前의差別主張으로부터 漸次緩和되야 米穀自治管理案까지 일부른것은 그들로서는 朝鮮米에對하야 讓步한 米穀政策이라고 말할것이다 그러치만 이것은 表面을 假飾한것에 不過하고 實際의根本的目標는 어느程度까지의 朝鮮米移入의阻止는 以上에서말한바와 가려 疑心할餘地가 업다 그러고 이實例의하나를들면 米穀統制法의 最低最高價格의買上, 賣渡가 日本內地만 適用되고 다만 朝鮮에는 昨年에 臨時米穀調節法令이 實施되엇슬뿐이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의朝鮮米優待라는것은 事實과全然相反되는말이라고 하여도 過한말이 아니다

×

끄트로 말하라는것은 그가 朝鮮米穀界의 實情을 觀察次로 왓다고한다 그의觀察은 안보는것보다는 나흘는지 모르나 이亦皮相的觀察에 끄처지고말 것이아닐가하는點이다 왜 어러냐 朝鮮經濟에잇서서는 依然히 米의動力의 地位에잇고 朝鮮米穀이 그入割을 占하고잇는터이다 그러나 年八九百萬石을 移出에잇서 朝鮮人의 손으로 移出되는것은 그中의五十萬石程度에不過하고 또는農家의손으로부터正租가朝鮮內의 中間商人에넘어가기까지 石에六圓가량이나 이것을 그가 이번의 觀察로써 認識케되기는 어려운 터이 오늘의朝鮮米穀界의 實情이다 그러므로 結局 그의觀察은 그가 農林省에 안저서 들어서 안것을 實際에 보는程度에 그치게 되지 안흘가 생각한다

米自治管理案 畢竟再現될機運
◇…農林省態度가極力支持로
今年農形如何不拘

米穀自治管理法案이 審議終了가 되엿스나 農林省의意向은 別報의荷見米穀局長談과가티 그自治管理法案을 이以上最善의案이업고 또는이것은 臨時的對策이 아니라 恒久的對策이라고하야 어듸까지 그自治管理案을 支持할이 確實하다 그럼으로 今年 農形如何를 不問하고 다음議會에잇서는 그實現을 期키爲하야 荷見米穀局長을 朝鮮에出張케 한것이라고한다

朝鮮米差別待遇 農林省은생각치안허
▲…荷見農林省米穀局長談

荷見農林省米穀局長은 十九日午前七時四十分에入京하엿는데 農林局長室에서 記者團과會見하고 압에와가티말하엿다

▲生産費調査‖今後의米穀政策은 그基調를生産費에둘必要가잇고 또朝鮮米는 米穀界에重要한地位를占하고잇다 閑暇의틈을타서 朝鮮米穀實情을 觀察하라고왓다

▲管理案流産後對策‖自治管理案은 審議未了로되엇스나 나는解消한것으로認定치 안는다 法案의作成에는貴衆兩院의專門家와그權威者의손으로 作成된것임으로 現在에는이以上 最善의政策이라고미드며今後의米穀政策에는 自治管理案의精神이 나타나게될것이나 自治管理案은 從來의政府買入에依하야만 調節하든것을 財政的負擔을輕減하는意味로 民間에도 貯藏케할것을 主眼으로한것인데 特徵은압에와가튼 三項이다

一、政府의買入總量을 적게하야 財政的負擔을적게한일

二、民間에도 貯藏케하야 一定한價格에達한境遇에賣却케되고 恐慌을 막어消費者階級에도利益이잇는일

三、最高價格에 達지안트라도賣却이 可能한일

▲朝鮮米差別問題‖朝鮮米의 差別待遇가 朝鮮에서는 매우問題가되는모양이나 東京에서는 참아리不可思議로생각한다 米穀政策으로는 日本內地와略同一條件으로 買上할것임으로 돌이어朝鮮米優遇가日本內地에서는問題가되어잇다

▲今后需給關係‖民間의 在米가 매우減少하엿다는말을 드럿스나 나는그러케認치안는다 三月一日現在의在米가民間과政府를合하야三百萬石가량임으로端境期의需給에는何等念慮가업다고생각한다

▲今後專賣與否‖自治管理案이終局에到達할點은 專賣案이 아닐가하는見解도잇스나 나는그러케 생각지안는다 管理案이政府의調節限度를明確히하고그限度內에서는自由主義로放任하며 今後도自治管理案의精神을 압세우고 차라리專賣案을멀리하고잇는터이라고나는 解釋한다

日本品競爭에 對抗案講究
米國關稅改正案提出

【華盛頓十七日發】保護政策을가지고 極東主義商品에對한 辛棄報復案으로 보이는 마사추세쓰州選出共和黨下院議員아렌로렌스도위氏는 日本品의競爭에 對抗하야 綿業을保護키爲하야 綿織布及 染色綿布의 輸入品에 對하야 從價稅外에 最低價格稅를適用코저하는國稅改正法案을 十七日下院에 提出하엿다

指定商人側 紛糾解決
政府에無條件一任

【大阪電話聯合】指定商人制를圍繞한絹工聯과 日本絲染、綿絲等輸出組合과의抗爭問題에 關하야 輸出組合에서는 過般以來代表를 東京에보내어政府側의 意向을聽取케하얏는데 商工省으로서도 屢田、할드氏의東京會談으로 바라비야 會商再開에意見이一致되此際임으로 살좀輸出統制의 紛糾解決에는 相當히 苦心하고 來二十五日에 開催될 絹工聯의살롱 商議委員、結果를기대려積極的으로 解決에進할 意向을明白히하고 商工省에 無條件一任을 要望하얏슴으로 輸出組合에서도 商工省의 意向대로 政府에 無條件一任하고 事態의 推移를 監視키로 決定하얏다 그러나絹工聯과의 紛爭은右外에 抽籤에依한 販賣順位의決定等取引方法에關한 複雜한問題도 未解決대로남어잇슴으로 兩者의和協이成立되기까지는 相當한迂餘曲折을 免치못하리라한다

極東企業公司 日佛合辦으로

【東京電話聯合】佛蘭西꾸로살모떼會社와 東亞土木會社와의合辦에依한 極東企業公司(資本金十萬圓 兩者折半出資)를 創立하기로 近日中大連에서 創立總會를 開催하고 役員其他를正式決定할터이라한다 役員中社長은 東亞土木側으로부터내고副社長은모판社代表에 노氏就任을보기로內定하고本社를大連에두어第一着手事業으로서目下 모판社引受中의滿洲國外交部廳舍의 建築을行할터로 滿洲國官營建築에着手할豫定이라한다

對中借款의 整理를期待
預金部態度가變化

【東京電話聯合】昨年末以來 對中償權의整理는 徐徐히進行하야 이미 政治交涉이成立한償權額은 一億二千萬圓에 達하고 繼續하야 南滿鐵道借款及 財政部關係借款의政治交涉으로 東亞興業內田常務가 中國에가잇는中으로 그交涉經過가注目되는데 對中償權에 對한 大藏省豫金部의態度變更으로中國政府財政部關係의整理도早晩解決될것으로보인다 即從來民間側의償權整理에適用된原則과償務整理의償還年賦를 먼저元金에 繰入하야將來의 利拂을輕減키爲한元金優先充當의原則은 豫金部關係의償權에對하야서는法規上適用에 難色이잇슴으로 整理의困難을 豫想하고잇는데 最近中國側의 誠意잇는 態度로보아 반드시 法規에 拘束되지안코 日中委員會의 決定에依하야 元金優先充當도 반드시排除치안코 整理를 促進할意向으로서 財政部關係借款의整理도 有望視키에至하얏다한다

米運賃交涉
調停無効果로決裂

鮮航對『鮮米同盟會』의 夏節運賃交涉은 決裂狀態대로 總督府의 調停에入하야 總督側은 堂本商工課長、高松海事課長、吉池技師와 十八日午後三時半부터 京城俱樂部에서 會見하고最後의協議를行하엿스나 結果、主로서堂本商工課長으로부터

一、五百噸積을 容認치안흘境遇의運賃引下率

一、五百噸積을 容認하는 境遇의運賃引下率

에就하야 鮮航의意見을徵한結果雙方의主張에 依然格段의相違가잇서 妥協의餘地가업슴으로 總督府當局은 調停에서손을 떼고 運賃交涉은 完全히 決裂키에至하얏다 即朝鮮米運賃交涉이시작된以來처음되는 現象으로 關係方面에 非常한衝動을與하얏는데 이로써 各港共히 今後는自由積取로될터이라한다 그러나自由積取로되면 運賃의紊亂을招來하야朝鮮産業에 惡影響을及하겟슴으로 今後는事에依하야 遞信當局의諒解를得하야運賃의 基準을決定케하기로되리라한다

今日財界 (十九日)

◇米		(單位錢) 今日止	先前日
仁川期米	先限	二七·五五	一〇高
大阪期米	先限	二九·八七	五高
㊀三等米	一石	二三·三〇	一五高
京城一等白米百키로		二〇·〇〇	三〇低
正租(仁川)改良		七錢八厘五	
一斤價	在米	七錢七厘〇	

◇市中金融	一分賣	一分買
金	十二圓十五錢	十二圓五十三錢
銀	二十八錢〇厘	二十五錢〇厘

◇株	(單位錢) 今日止	先前日
朝新	—	—
東新	一四八·六〇	三〇低
日産	九六·六〇	四〇低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綿絲	二〇四·二〇	三〇高
大阪綿花	六三·二〇	六〇高
大阪人絹	六四·〇〇	一〇高
大阪砂糖	一二·一三	一四高
고무現	三六錢〇〇	先三六錢三五

東株配當維持?

東株今期成績이 不良할것도人氣를衝盪케하는것으로 弱氣側으로서는 이點에重點을두고 한번 低落을날을기대리고잇스나 今期實質高가적은것이 事實이기는하지만 評價가減少하얏슴으로 어면사리로 或六分으로減配를豫想하는便이업지안치만 六分四厘配當은 維持할모양이라한다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二百四十枚 ▲大同電力新六一·六〇 ▲朝鮮製紙三〇·一〇 ▲大同電力四六·〇〇 ▲宇治電四九·三〇 ▲帝麻新一三二·五〇 ▲東北鐵道鑛業三三·五〇 ▲富士木材六·四〇 ▲日蓄亞麻三七·一〇 ▲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昨日의反落環境高로來貨價六分半二圓高 五分半一圓六十錢買進되고佛貨도十錢高로强調를示하얏다

甲五分利 一〇三、四五 ▲一回四分利 不申 ▲二回四分利 不申 ▲佛貨四分利 一八五、三五

大新擡頭運動이起하야 九十圓臺를突破한大新은 前場에大阪期九十三圓까지올라 强勢이더니 株界가全般的으로 好勢되지안는限 大新의獨騰高는依然生權으로보는便이만앗다

目前小底入觀
但買時代尙早

【閑散에賣物업다】는것은觀界의定石일뿐아니라 모든惡材料도相當히市勢에織入되엇더니 賣默症도날만이다。 그러타고買할수도업는 것이事實이니 이런人氣委縮時에 賤入하야 轉換을促進할이가업고 大勢는아즉買時代가아닌것가트나 海外事情으로말하면 和蘭瑞西等의金本位離脫이 그時期노듯하고 中國이말로도健全通貨를 내세우고 米國의 景氣前途에幾分期待를가지는것이라던지 人絹賤入銳礫生絲回復等과相俟하야目前小底入觀도업지안흔모양이엇다

和蘭貨切下를
도리여기대려

和蘭平價二割切下는 決코輕視할 수업는問題인데 强氣側으로서는 차라리 얼는決定發表되기를기대리고 그리되면도리어 策動키에 便하고보기도하는모양이나 아즉 그런 決定이업는마큼 不安은 不安대로 延長되어갈뿐인데 强氣側에서보는逆解釋은 如左한모양이다

길다貨의切下가 實現되며爪哇糖의輸入을 促進키보다는和蘭國內인푸레熱을 煽揚케되어糖價昂騰가豫想되고 近時內容充實한砂糖株에는 賣物이업스며이 一角은 和蘭平價切下의逆襲을 이미맛친것으로보는모양이다。

今後對策
歸阪後에決定
鮮航同盟代表須藤氏談

【鮮航同盟會】夏節朝鮮米運賃交涉委員은 十九日午後一時부터本町호텔에서開催된 支部長會議에出席하고 五月以降의配船其他問題에就하야 對策樹立後二十日午後三時發로 歸阪하기로되엇는데 歸阪後大阪에서緊急評議員會及總會를 開催하고 五月以降의對鮮米積取問題對策을樹立키로된바 退京에際하야須藤代表委員은 如左히 말하얏다

永年의協定도 小型汽船이라는 時의副産物에依하야 破裂되엇는데우리는될수잇는대로다시原狀回復코저思한다 어찌할까는 大阪에歸한後의일이다 그러나 荷主와허여젓다하지만 만흔朝鮮米生産者인農民과허여진것이 아님으로今後라도 生産者의立場을無視하는일은 充分히愼戒코저한다云云

農村食糧不足
中國粟輸入激增
年初以來六萬六千石

朝鮮農村의 食糧은 昨年雜穀의 平均四割減收와 代用食으로서例年大量輸入을하던滿洲粟의 減收에伴한輸入減으로不足을 告하야 不得已中國河北省의 所謂天津粟의 輸入을하는新現象을 示하기에至하얏다 總督府調査에依하면

三月二十日長山丸九千六百袋▲同二十一日加能丸 一萬四千八十袋 ▲同二十八日浙江丸一萬八千七百二十袋▲同三十日加能丸九千三百袋 ▲同三十一日地海丸七千六百六十五袋 ▲四月五日民和號千八百七十五袋를仁川에 陸揚하야年初以來의天津粟輸入 累計는九萬五千五百六十五袋에 達한一方上海로부터도四月六日의 自進丸으로二千袋의輸入을보아 中國粟의累計가九萬八千七百五十袋 石으로換算하면實로六萬六千二百三十二石이라는 數字를示하얏다한다

經濟界消息

▲有賀殖銀頭取荷見局長等招宴‖有賀殖銀頭取는入京한荷見米穀局長을 主賓으로하고米界關係有力者約二十名을 十九日午後六時半부터 京樂料亭에招待하야 晩餐會를열터이라고

商況欄읽는法 ⑰
崔晉夏

▲期米編 (四)

◇各限月‖限月은 即期月일기식게말하면 幾個月을 期限하는말인데 期米의取引은 本欄에 이미 말한바와 가티米取引은 一律的으로 三個月을 期限하야 三個月을 마치는때는 賣買兩方이 쌀의 受渡를 하게 되는것임으로 이三個月을 三期에 分하야 當月限、中月限、先月限等 當中先의三種으로 되어잇는바 當月限은 當月末이 即 受渡期이오 中月限은 그翌月末이 受渡期이며 先月限은 翌翌月末이 受渡期이다 그럼으로 三個月間 米價의 變動如何를 미리 推測하며 또 最後受渡에對한 利害打算을 한뒤에 賣買를 하는것인데 이것을 限月賣買라고 한다 그런데 一例를 들어말하면 一月初에 米取引所가 新設되엇다限定하고 受渡期限을 三個月로 定하야 賣買를 하게되는바 이것을 即先月限(三月限)이라고 稱하며 이先限이 一個月 即一月을 지나서 二月에 들어가는때는 中月限이 되는데 또 中月限이 一個月 即二月을 지나서 三月을 當하는때는 當月限이라고 稱하는것이다 그럼으로 二月에 賣買되는 先月限은 四月限이라稱하며 三月에 賣買되는 先月限은 五月限이라고한다 그러고 當限、中限、先限이라고 하는말은 即當月限 中月限 先月限을 約한것인데 當月限 又는 當物이라고도하며 中限을 中限 又는 中物이라고도 하며 先限을 先月 又는 先物이라고도 하는바 所謂 當限一代라고 하는것은 當中先三時代를 合한意味의말이다

◇新甫와發會…新甫라는말은 처음出生한다는 意味의말인데 假令六月限 即先限이 四月一日에 처음으로 發生되엇다하면 此를新甫發會라하는 말은 곳發生과가튼말임으로 新甫六限이 發生되엇느니 又는誕生되엇느니하는말을使用하게되는바 發會는 誕生한 生直라고도한다

◇納會…納會라하는것은會를 마친다는말인데 發會와는反對되는말이다 即限月의 立會를 마지막으로하는 말인데 每月末에 場을 마치는 것을 普通納會라稱하고 當限의 最後一場을 마치는것을 當限納會라稱하며 年末에 마치는것을 年末納會又는年末大納會라稱한다

◇立會와休會…立會라는것은 取引所로부터 指定한 取引店의賣買代理人이 一定한場內에 會集하야賣買의石數와價格을 記錄揭示하는 取引所員의 立會아래에서 賣買하는것을 말함이며 休會는立會와의 正反對로 立會를 쉬는말인데 日曜日, 祭日, 年始年末에는 반드시休會를하게되며 又는意外의故障이생겨서 立會를中止하지안흘수업는 境遇에는 取引所는 臨時休會를 宣言하는일도잇다

商況 (十九日)
上伸難의 株式鈍狀

前場伸惱

鈍重이나强含步調이던 市勢가 今前場은 米綿絲高를보고 東新百四十七圓二十錢、日産九十七圓八十錢大新九十三圓丁 朝新二十七圓八十錢에 小高寄付後도 戻賣에 눌려結局 昨後引에比하야 大新二十錢低東新十錢高、日産保合으로大引되어잇다

後場少軟

後場은 東新百四十七圓三十錢、日産九十七圓三十錢 大新九十二圓七十錢、朝取六十二圓丁、朝新二十七圓七十錢에 依然保合後鈍重少軟裡大引

展開難의保合

大小의 問題가綜合되여잇슴으로 買叢鑑의一方賣方의反省氣分等이 얼키어容易히 保合圈을離脫치못하고잇는實情인데 今前場도寄付는 强하얏스나 大勢의進退는 結局細則保合商狀이엇다。 큰相場師의出動도離期이오大衆의買進도바랄기어려운마큼大勢의 展開는至難視되고考究와準備로消日할모양이다。

大新高繼續?

大株新築落成을압두고祝賀氣分의

市場六感

株

市場은 低迷頽散으로動搖을 차저낼수업는一高一下의浮動▲사면弱하고팔면强하야文字그대로의갈팡질팡▲東新으로말하면四月二日東京短期百四十三圓五十錢에서五日百四十九圓七錢까지 反撥되고나서百四十八圓과 百四十五圓臺即三圓幅의保合이 繼續되기二週間▲이러다가分岐만되면 上下間큰것이잇것기는하겟지만 언제分岐되고어듸로分岐될지를몰나너나할것업시 궁금症만 더

米

猛烈하게도風雨를볼 할뿐▲不安에 包圍되어 잇지만賣默症도 난것이事實로 市勢가 目前難入觀이 잇기도하나內外諸不安이 解消되지안는限 嫌氣加重을 免치못할것아오結局은不知不識中 買込을誘하야一段低落을보일것이아닐는지? 아오든軟軍도 二十七圓을蹴破하지못하고 結局退却▲伴敗而走하는 어떠한術策인지는몰으나 硬軍의抗戰도 자못相當하야 二重城인七圓臺만은死守▲七圓臺를維持하는때는 結局市勢은向上할것바게업스니 찰아리買方은 持久戰

期米 伸惱裡에 昂進

前場反落

昨後場阪地二十九圓八十八錢止와 共히二十七圓五十五錢에寄付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二十九圓九十九錢인十二丁突高를반하고 二十七圓六十七錢인 十二丁高로寄付後 阪地三節三十圓〇三錢으로 反引二十九圓九十九錢에小弛함을伴하야 二節七十一錢으로六十二錢까지下押하엿다가 結局阪地三十圓〇三錢으로 三十圓에止하고 場합듬며 八節七十錢으로强硬하고 六十六錢에場을止하엿다

後場强調

後場은二十七圓六十三錢에三十錢低로始場後二節六十錢에弛하얏스나四節六十九錢에 更進이고別欄가티止揚하다

風浪靜息의觀
軟風은一巡乎

造化不測의天氣如何를누가미리推測하랴 米價의大勢도亦天然인만큼米界人士들의알지못하는일이다 今年과如한凶作後의米價가減殺期이得意? ▲그런데本年米의事情으로보아서는 更히瓦落할餘力이업다고 足히保證할수도잇스나 그러나今後植付期의天候가問題 ▲實로天候의順調로植付가完了되는때는 買氣가업마큼減衰될것이며 딸아서賣惜하든農家의態度도一變할것이다▲그럼으로今後의大勢는全혀農期의天候如何에잇다하여도過言이아닐듯 ▲그런데昨今仁川在庫米의稍漸減退됨을보면 時期가時期인만치更히增加하지는안을듯▲그러고本月末까지는渡米의威脅을바들지는몰으나來五月부터는돌이혀賣方으로서 渡米蒐集難을부르짓게될지도亦未知

朝取期米取組高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四〇〇	㊄一〇〇〇	㊆一〇〇〇	㉮一〇〇〇	㊄三〇〇	㊆二〇〇〇	㉮一〇〇〇	㊄一〇〇〇	㊆[illegible]

底價鍛鍊時代
一張一弛를거듭

예入하는此際에 凶作에對한懷憂가 徐期하지못하엿든일이다 그反落의原因이란 첫재在米의壓迫을受하엿다는것과 日本內地麥作의良好엿는 濠洲米의 作柄不良가지條件이나 그러나 此等의材料만으로는大勢를 抑壓할만한材料로는 안되는다 그레서 意外에一陣軟風이大作하야 鐵城과如한硬派의陣營을風靡한後 二十七圓臺上에서 그勢力이減衰하엿섯다 그제야硬派는비로소精神을收拾하야 捲土重來의態勢를갓추려하나 한번기우러진大勢라 容易히恢復하지못하고 風浪靜息의狀態로 稍高稍弛함에此이다 그러나今後植付期의天候가마치如何할지는 몰으나 大體今年米의事情으로는압흐로農作의良否를 判斷하기까지 無理히瓦落하리라고는할수업다

今月初에 二十八圓五十九錢까지昂騰하엿든市勢는 二十七圓十錢까지의百五十丁의瓦落을 告한後反撥을示하더니 因而一張一弛의繰返으로 底價鍛鍊하는觀이잇다 然底堅味를添하야 五六十丁의反撥派의利喰과硬派의防戰으로 低迷裡以來軟派의主張하든 모든弱材는 市勢의反落과共히烏有에歸하고 凶作의根本的强材는마치潜行艇과如히 依然潜勢力을가지고잇슴으로 容易히大暴落을許하지안는모양이다 人心이即天心이라는말과가티 賣惜하는農家의態度는 昨今의暴落에도 小毫도變치안코 高米價의時代를期待하는자못遠大한方針을取하고잇스며 一方集散市場의在米는 昨今에入하야幾分減退하는觀이잇스즉 結局市勢는 此邊에서十分繰返하다가어느程度까지의高價를내지안흘가한다 果如何?

各地正米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東京側山種永岡모두 側三十枚寄來을 絶好의反擊으로 보아優勢의起進이엇다

賣方 永岡、山種、地場 正米側、朝鮮側、東京側、地場軟派

買方 弘田、西山、永京側別派、高橋、田中眞、地場强氣側

京城引締

依然突込한賣物이업고 移出米의 小反撥과實需買旺盛으로氣配十五錢引締인丸仁三等二十七圓三十錢 四等二十七圓丁 一等白米二十圓丁

仁川堅調

淸算의反撥로步調를보고移出側의買氣와産地賣物이不捗하얏스며 唱은前日에比하야 十五錢高의堅調로 ㊀三等二十七圓三十錢 四等二十七圓丁 一等白米十一圓六十五錢

釜山引返

出廻三千叺이오 期米高로 産地의賣惜躊躇態度를不敢하고日本內地로부터 入注가잇스나 大槪는不合에終하고 必需當用稍充買取로 十錢高에取引되엇다 取引高는一千五百十一叺으로 角ㄱ三等二十七圓五十錢 四等二十七圓丁 一等白米十一圓七十錢

大邱上放

産地持意頗强이나 一般으로高價는 飛付買가 警戒되어 不活潑한商狀이나마氣配十錢上放인 角ㄱ三等二十六圓七十錢 四等二十六圓四十錢 一等白米十一圓二十五錢

群山反撥

産地事情에는 조곰도變함이업고依然賣惜하야定期의引縮를보고阪神側으로부터의 相當히大口注文이잇서場面은活氣를帶하얏스며 氣配十五錢反撥인 ㄱ三等二十七圓四十錢 四等二十七圓十錢 一等白米十二圓四十錢

木浦硬化

春枯變質期에直面하야 賣物이豊富히商來되엇스나 期米의好轉을보고日本內地側의 買進과 地場必需側의買로消化되어氣配二十錢硬化인丸木三等二十九圓三十錢 四等二十九圓十錢 一等白米十一圓五十錢

南浦小高

小口에 換金的賣物이多少잇고 期米의頑强을보고 當用筋間에十錢高로 取引되엇다 ㊉三等二十七圓五十錢 四等二十七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一圓二十五錢

金融 十九日

◎海外經濟◎ 十八日

倫敦金塊	七磅三志七片
換算一匁	一四圓七一錢
倫敦銀塊	三〇片一六分一五
米棉	五三弗三三高
印棉	四四弗[illegible]低
[illegible]	三一弗四分三
아나콘다	一一弗二分一
紐育銀塊	六七仙八分五

◎朝鮮銀行券◎ 十八日

發行高	一四八·九八八·〇九〇·〇〇
正貨準備	九九·六五〇·八七七·五九
保證準備	四九·三三七·二一三·四一
	單位圓

◎日本銀行券◎ 十八日

發行高	一·一三五·〇八八減四三二八
正貨準備	四六三·八八一
預金高	四四七·三六減一三〇三五
貸出高	六〇四·〇五〇減一三四八六
	單位千圓

◎京城手形交換高◎

金額	五·〇〇六·〇〇九·五四錢
枚數	五·二八五枚

◎東京金利◎

翌日物	〇錢六五——錢
無條件	〇錢七〇〇——錢
無條件	〇錢七〇〇——錢

◎大阪金利◎

翌日物	〇錢七〇〇——〇錢七〇〇
無條件	〇錢七〇〇——〇錢七五〇
月越物	〇錢八〇〇——〇錢八三〇
商業手形	一錢三〇〇——一錢七〇〇

◎對外爲替◎

米日爲替	二八弗六〇仙
英米爲替	四弗八五仙
以下朝鮮銀行建値	
對英	一志二片三二分三
對米	二八弗二分一
對上海	一三九圓

◎金買入價◎

日本銀行	一瓦	三圓〇九錢
朝鮮銀行	一瓦	三圓〇七錢
京城鍾路	一匁	十一圓五二錢
京城本町	一匁	十一圓五二錢

米穀 十九日

◎京城正米◎

㊀三等米	一石	二七·三〇
㊁四等米	一石	二七·〇〇
總督支米 上	一石	二五·四〇
中		二五·一〇
下		二四·七〇
一等精白米百키로 上		二〇·〇〇
中		一九·七〇
下		[illegible]
正租 上	一斤	七錢八〇
中		七錢六〇
下		七錢四〇

◎仁川正米◎

㊀三等米	一石	二七·三〇
㊁四等米	一石	二七·〇〇
無檢査地方米	一石	[illegible]
一等精白米	60키로	[illegible]
在來正租		[illegible]
改良正租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日本米	朝鮮米
上	三〇·三〇	二九·[illegible]
中	二九·〇〇	[illegible]
下	二七·三〇	[illegible]

◎京城雜穀◎

大豆 龍山	三等	[illegible]
連長	三等	[illegible]
金谷	三等	[illegible]
粟 滿洲	同	[illegible]
小麥		[illegible]
大麥		[illegible]
白		[illegible]

◎仁川大豆◎

龍山大豆	一石	八·〇〇
長湍大豆	一石	八·〇〇
金谷大豆	一石	八·〇〇

商品 十九日

◎京城綿糸布市價◎ (單位 [illegible])

◎京城紡績製品◎

◎大阪綿糸布市價◎

◎日本綿紡市況◎

◎蘇油市價◎

◎大連特産市況◎

◎滿洲商況◎

◎鰯搾粕冲值◎

(以上各欄 數字 [illegible])

株式 十九日

◆朝取短期◆

銘柄	前寄	前引	高値	低値
朝取	六二·〇〇	六二·〇〇	六二·〇〇	六二·〇〇
朝新	二七·九〇	二七·七〇	二七·九〇	二七·七〇
鍾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九三·〇〇	九二·九〇	九三·〇〇	九二·〇〇
東新	一四七·三〇	一四七·二〇	一四七·三〇	一四七·二〇
日産	九七·八〇	九七·七〇	九七·八〇	九七·五〇
安取	—	—	—	—
日魯	—	—	—	—
拓新	—	—	—	—
日鑛新	—	—	—	—

◆大阪長期◆ · ◆東京短期◆ · ◆東京現株◆ · ◆東京短期取組◆ · ◆大阪短期◆ · ◆東京短期賣買高◆ · ◆實定代引日步◆ (數字 [illegible])

期米 十九日

◆朝取期米◆ · ◆大阪期米◆ · ◆東京期米◆ · ◆大阪期米取組◆ · ◆東京期米取組◆ · ◆朝鮮內各地期米◆ (前場·後場 一節~十節 當限·中限·先限 數字 [illegible])

商品 十九日

◆大阪綿絲◆ · ◆大阪棉花◆ · ◆各地人絹◆ · ◆橫濱生絲◆ · ◆大阪砂糖◆ · ◆海外砂糖◆ · ◆大阪市中在米高◆ 二八八二四六俵 一一三四五俵減 · ◆日本各地期米◆ (數字 [illegible])